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碩士學位論文

중국인의 부족한 점

中國人你缺了什麽 - 韓國語飜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飜譯大學院

韓 中 科

韓 侖 序

2014年 7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중국인의 부족한 점

中國人你缺了什麽 - 韓國語飜譯論文

指導敎授　宋　呟　宣

韓　侖　序

이 論文을 通譯飜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 年　7 月

韓侖序의 通譯飜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通譯飜譯大學院

2014 年　7 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hinese, what are u lack of?

Yoon-Seo Han
(Supervised by Professor HyunSun S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14. 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Chinese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TRANSL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I. 아들 · 엄마 · 공복 · 물 ---------- 01

II. 빈부론 ---------- 05

III. 중국 문화에 보충수업이 필요한가? ---------- 14

IV. 백년 문화의 표정 ---------- 19

V. 문명의 척도---------- 25

VI. 중국 인사기록부 제도에 대한 의문점 ---------- 29

VII. 누가 휴지통을 비워야 하나? ---------- 33

VIII. 자전거를 지키는 여자---------- 37

IX. '사실'에 관한 복잡한 감정---------- 43

X. 세상에 대국은 없다 ---------- 47

XI.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존중하자 ---------- 53

XII. 질책만으로는 부족하다 ---------- 5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아들 · 어머니 · 공복 · 물

복건성(福建省) 동산현(東山縣)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곡문창(谷文昌)일행이 처음 섬에 갔을 때만 해도 그곳의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모래로 인해 풀과 나무도 자라지 않았고 물도 매우 부족해서 일단 가뭄이 닥치면 우물 열 개중 아홉 개는 말라버리는 지경이었다. 그 물이 귀한 정도가 마치 서부의 수원(水源)이 극히 부족한 지역과 비슷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설사 아직 마르지 않은 우물이 있다고 해도 그 수심은 말도 못하게 얕았다. 얼마나 얕은지 보면, 겨우 몇 센티미터도 안된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이렇게 얕은 물을 대체 어떻게 길어 올릴 수 있을까?

물론 방법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다란 밧줄을 이용해 아이를 매달아 우물 안으로 내려보내는 것이었다. 아이는 신발 때문에 물이 더러워질까 봐 우물 밖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만 했다. 아이는 작은 국자 하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품에 안고 우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작은 발이 우물 바닥에 닿으면 아이는 바로 몸을 쪼그리고 앉아, 한 국자 한 국자씩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 아이에게 이것은 중요한 일이자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라 말할 수 있었다.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는 작업은 많은 인내심과 사명감으로 완성해야 하기에 서둘러서는 안되었고, 서둘러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면 위에서 밧줄을 끌어 올리고, 우물 앞을 지키고 있던 어른이 대야나 통에 물을 옮겨 부었다. 이렇게 항아리를 몇 번 올려보내면, 우물은 늘 그 바닥이 드러났다. 그러면 아이는 쪼그리거나 서서 인내심을 가지고 서서히 물이 고이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우물 앞에서 기다리는 어른은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 가족이 밥을 짓고 마실 물을 마련하는 데는 언제나 한 시간 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아이는 작디작은 맨발로 물을 긷는 내내 얼음장처럼 차가운 우물 바닥을 밟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면, 아이가 밟게 되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것은 차디찬 진흙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물이 다시 차오르면, 그 조그만 발이 차가운 우물물에 푹 잠겨버리곤 했다. 이따금 물을 기다리는 어른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는 날에는 아이들도 우물 옆에 줄을 섰다가 차례가 되면 우물 안으로 내려가곤 했다. 그리고 밧줄에 매달려 우물 안에서 밖으로 올라온 아이는 밧줄을 풀기 바쁘게 모래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모래는 햇볕을 받아 아주 따뜻해져 있었다. 아이는 그곳으로 달려가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차가운 물 속에서 쪼그려 앉아있느라 저리고 빨갛게 부어오른 조그마한 두 발을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모래 속에 쏙 집어넣었다.

다른 집들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가족이 있었다.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집 뒤에는 우물 하나가 있었다.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들었지만 다행히도 그 우물은 바짝 마르지 않았다. 아이의 아버지는 외지로 일하러 떠났고 어머니와 아이 단둘이만 집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달리 방도가 없어 여섯 살짜리 아들을 매일 밧줄에 매달아 우물 안으로 내려보내 물을 퍼 올렸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아이가 우물 안에서 물을 긷고 있었던 사이, 굶주리고 목마르며 아프고 열이 던 어머니는 그만 우물 옆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아이는 우물 안에서 올라올 방법이 없어 그저 소리치며 울어댔지만 그 울음소리도 고함소리도 듣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다. 날은 점점 저물었고, 이미 목이 쉬고 눈물이 마른 아이는 더는 소리를 지를 힘도 울 힘도 없었다. 깊은 밤이 되어서야 찬바람에 정신이 든 어머니는 그제야 황급히 아이를 끌어올렸다. 아이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 듯 떨면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만큼은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이후 그 아이는 영원히 두 다리로 설 수 없었다.

그해 동산현 현당위(縣委)[1]서기로 있던 곡문창도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현장(縣長)[2]에게 이렇게 맹세했다. “만약 우리 현당위가 주민들과 함께 모래 재해를 반드시 해결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물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지 못한다면, 저를 언제든지 모래 언덕에 생매장하십시오!”

물론 그가 모래 언덕에 생매장될 일은 없었다.

---

1) 중국 공산당 현 위원회.
2) 현(중국 행정 구역 단위의 하나)의 행정 사무를 관리하는 공무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왜냐하면 그는 현당위서기로 있던 14년 동안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질책도 달갑게 받아들이며, 수많은 좌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동산현의 모래 재해를 해결했으며, 주민을 위해 물 부족문제도 확실히 해결했기 때문이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은 점점 감동으로 바뀌었다.

공복(公僕)이란 무엇인가?

공복은 백성을 부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공직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천성일 수는 없다. 백성의 고통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듣고 본 것을 가슴으로 아파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곡문창은 농민 출신이었다. 그가 하남(河南)의 한 지역에서 서기를 맡고 있을 때, 그는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겨 날마다 주민들을 만나 소통을 했다. 그에게 주민을 위하는 마음은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동산현 현당위서기를 맡은 후 약 14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공복의 본분을 잊은 적이 없었다. 이점이 지금의 일부 '공복들'과 크게 다른 부분이다. 현재 일부 공복 중에는 국민들의 삶을 전혀 보살피지 않고, 오직 '윗선'에 잘 보여 단번에 높은 자리에 오른 이들이 많다. 공복의 힘이 커질수록 국민들과의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진다. 국민들이 그들을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물론 이런 공복도 귀가 있다. 하지만 그들의 귀는 상사가 의도하는 바와 공복사회의 동향을 듣는 역할만 한다. 눈도 있다. 그러나 이 눈 역시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상사의 안색이 어떤지, 진급비결이 무엇인지만 보일 뿐이다. 눈이 있고 귀도 있지만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한다. 그야말로 모든 게 마비되어 있다. 마음이 쇠붙이처럼 차갑고,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측은지심마저도 모두 잃어버렸다. 다른 사람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 그들은 갑자기 표정이 변하고 몹시 짜증을 내곤 한다.

내가 어느 대학에서 아들 · 어머니 · 공복 ·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자, 교단 아래에 있던 여학생 한 명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다들 놀라할 때, 내가 그녀에게 "왜 우니?"라고 물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도 50년 전의 동산현 그 남자아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단지 다른 점은 저의 어머니가 밧줄을 이용하여 저를 들여보낸 곳이 깊은 우물이 아니라, 서부(西部) 내륙의 물웅덩이였어요. 우리는 우물을 팔 수조차 없어서, 집집마다 물웅덩이에 겨울철의 눈과 여름철의 비를 모아두었어요. 저는 밧줄이 끊어져서 물웅덩이에 떨어졌지만 그 남자아이보다는 운이 좋아서 다행히 앞니 두 개만 부러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 숙연해졌다.

높은 강단에 서있던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몇 달 뒤, 나는 ‘중국농민생활현상’에 관한 세미나에서 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었다. 그 전문가 발표에 따르면 현재 46%의 농촌에는 여전히 수돗물이 없고 게다가 농촌식수의 절반가량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심지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농촌의 생산방식이 이미 집단화에서 개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업 기계화에 대한 국가 지원은 이전의 0.4%에서 0.35%로 감소했다고 한다.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농민도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고 다시는 식수문제로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과연 중국에는 몇 명의 곡문창이 필요한 것인가?

돈은 얼마나 필요한가?

곡문창이 많지 않다면, 돈이라도 많으면 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중국은 곡문창과 돈, 이 두 가지 다 조금씩 부족하지 않은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I. 빈부론

소크라테스 · 아리스토텔레스 · 헤겔 · 아우구스티누스 · 셰익스피어 · 베이컨 · 링컨 · 에디슨 · 버나드쇼 · 마르크스 · 루소 · 러스킨 · 러셀 · 소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빈부 문제에 대해 생각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은 모두 외국의 사상가들이지만, 사실 중국에는 이런 사상가들이 더 많았다. 게다가 그들의 주장과 관점을 보여주는 일부 담론들은 예로부터 널리 알려져 있기에 여기에서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는 모두 인류의 염원을 담아 발전한 사상이었다.

과거의 사상은 세상에서 부를 축적할 자원의 종류가 부족하고 수량도 충분하지 않았기에, 생산 분배와 소유의 갈등으로부터 탄생했다. 반면, 현대의 사상은 부의 종류가 전례 없이 다양해졌고, 수량도 그 어느 때보다 충분해졌지만, 빈부 문제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것에서 탄생했다.

세계에서 정치 · 경제 · 군사 · 외교 · 정권교체 등 큰 사건의 절반은 빈부 문제와 관련이 있다. 비록 겉으로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관련이 있다. 그런 큰 사건들의 배후에는 모두 나름의 원인이 있다. 바로 계층 간, 국가 간, 민족 간의 빈부 문제가 그것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건의 핵심이었다.

빈부 격차는 시대 불안을 일으키는 폭풍과도 같았다.

그리고 불균형한 경제 현상은 이런 폭풍을 만드는 배경이었다.

옛날에 강한 폭풍은 종종 폭동과 개혁을 불러왔다. 이는 재난이 휩쓴 뒤에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옛날 가난한 생활에서 희망도 도움도 받지 못했던 일부 사람들은 재난과 전염병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큰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봉기를 일으키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빈부격차를 알아내는 기준이 증오였다면, 지금은 경제상의 수치이다.

불안한 시대에는 종교조차도 인류의 영혼 문제만을 책임지겠다는 식의 입장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수할 수 없었다. 때로 종교는 스스로를 이용하기도 누군가에게 이용되기도 했다.

한 계급이 스스로 만족할 만한 부를 이룩하게 되면, 대부분 그 대표인물이 한 국가의 운명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갖게 된다.

그 야심은 그 계급의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국가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부를 이룩하게 되면, 대부분 그 지도자가 세계의 운명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갖게 된다.

그 야심도 그 나라의 자만심에서 생긴 것이다.

이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과감하게 행동한다.'라는 논리와 부합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계사는 이처럼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은 승패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각국의 경제문제로 결정되었다. 각국의 심각한 경제문제가 빈번히 경종을 울렸고, 결국 대전의 종식은 각국에게 모두 현명한 선택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더더욱 세계적인 빈부 문제에 인해 발발하였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독일과 일본이다. 당시 영국과 미국의 부강은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독일과 일본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했다. 독일과 일본은 자신들이 최단시간, 가장 빠르게 부강해질 수 있는 '방식'이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악랄한 방식이었지만 양국은 그 방식을 선택했다.

히틀러는 몇 년 내에 독일에서 한 가구당 최소 승용차 한 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도조 히데키는 중국 동북의 넓고 비옥한 토지와 광활한 산림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들어 일본의 부모를 현혹해 일본을 위해 아들을 군대에 보내도록 했다.

걸프전쟁은 빈부 문제로 일어난 전쟁이었다. 쿠웨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매장량을 가지고 있었고, 이라크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불공평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도 결국에는 민족 간의 빈부 문제로 발생했다. 팔레스타인인에게 제대로 된 수도가 없다는 것은 민족 부강의 빛을 볼 날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스라엘인에게도 예루살렘은 정신적 자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치가 더 높아질 물질적 자산이기도 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베를린 장벽 붕괴와 남북한의 악수는 인류가 분열보다 통일에 대한 염원이 더욱 크다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부에 대한 열망이 비할 바 없이 강한 설득력을 증명해준다.

대만도 더는 '대륙 수복'을 외치지 않는다. 중국이 나날이 부강해지는 이 시점에서 '대륙 수복'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 되었다.

클린턴의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여러 해 미국의 경제성장지수를 안정적으로 상승시킨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계속 존재하고 활동이 활발하며 유로화를 발행한 것은 승자가 독식하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흐름 가운데, 빈부가 국제기준이 된 세계에서 국제사회의 이인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연합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르놀트는 "현재 대다수의 영국 사람들처럼 아주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즉, 영국의 충분한 부가 영국의 위대함과 복지 정신을 증명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영국작가 디킨스와 영국희극작가 버나드 쇼가 표현하는 영국은 아르놀트의 견해와 달랐다.

역사는 우리에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던 영국의 과거의 부강이 무력을 통한 식민지 확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음을 알려주었다.

아르놀트가 말한 '확고한 신념'은 오히려 미국인의 신념이지, 영국인의 신념이 아니다. 오늘날의 미국 부강은 투기와 영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부강은 과거에는 무기와 탄약에, 현재에는 과학기술에 기대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한 국가가 국가 내부적으로 비교적 평등하게 빈부 문제를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면 그 국가는 나날이 부강해질 것이다. 설령 그 국가의 천연자원이 부를 축적하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로 인해 계속 빈곤하게 살아가진 않을 것이다.

중국이 바로 이런 예이다.

중국 개혁개방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다른 국가들처럼 많은 부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도시마다 종양처럼 자라있던 빈민가를 대대적으로 없앤 것이다.

현재 중국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만약 중국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세계에 보여줄 만한 것은 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무것도 없다. 이는 많은 자녀를 둔 엄마가 그 중 아이 한두 명에게만 예쁜 옷을 입혀서 남에게 과시한다면, 그 허영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일 빈부 문제를 외국의 사상가부터 중국의 사상가까지 논한다면, 선현들의 입장과 주장은 상반될 뿐만 아니라, 서로 물과 기름처럼 공존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예수가 부자 한 명에게 이렇게 말했다. “인의와 덕행을 갖춘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예수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수가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말은 빈부 문제에 대한 고대인들의 염원을 나타내고 있었다. 훗날 일부 사람들의 개혁사상과 비교하면 그것은 하나의 온건한 소망이었다. 이후에 생산력 향상으로 빈곤현상을 해결한 일부 사람들의 성과와 비교하면 그것은 단순하고 또 게으른 소망이었다.

인류의 빈곤은 자연적이고 오래된 문제이다. 인류가 밀림 밖으로 나와 동굴에서 살던 시기에는 동물보다 조금도 부유하지 않았다.

일부 사람의 부는 전반적인 생산력의 향상으로 이룬 것이다.

인류의 빈곤 문제는 바로 이 점에 중점을 두어서 해결해야지, 부자의 인의와 덕행에 의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정말 위대한 사상가였다.

그러나 그는 제자 아데이만토스에게 “장인(匠人)이 부자가 되고 나면, 그의 기술은 반드시 퇴보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자가 많아지면 인류사회 발전에 해롭다는 의미이다.

당시 아데이만토스는 그 주장을 모두 받아드릴 수는 없었지만, 반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장인이 부자가 된 후에, 기술학교나 공장을 세워 더욱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할 수도 있다. 이런 제품은 많은 사람들의 구매를 촉진하고 소비를 제고시키며 심지어 소비 트랜드도 이끈다. 또한, 사람들은 제품을 사기 위해 일터에서 몇 배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인류사회는 대부분 이런 경제 법칙에 따라 발전한다.

따라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틀렸다고 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스콜라철학을 집대성한 아퀴나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강경한 주장을 했다.

그는 “부를 추구하는 욕망은 모든 죄악의 근원 중의 근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오늘날까지 인류의 대다수가 이 말에 동의한다면, 빌 게이츠는 이미 백번은 더 화형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는 권력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 의해 거의 무한대로 독점되었을 때, 부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이 올바르더라도 그 합법성은 불신과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아퀴나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나 현명한 미국조차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발전을 제한해야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이 점을 일찍부터 간파하여, 법률적으로 제한할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사실 빌 게이츠는 무고하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죄가 없다.

합법적인 ‘게임규칙’이 보기 드문 경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그 기적이 ‘게임규칙’을 파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미국이 규제한 것은 ‘미국식 기적’ 그 자체이다. 기적에는 모두 비정상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성숙한 이성은 바로 이 점에서 나타난다.

베이컨이 신학의 권위자는 아니지만 ‘영웅들의 견해는 대체로 일치하다.’라는 말처럼 빈부 문제에서는 아퀴나스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했다. 베이컨조차도 “부자가 되는 방법은 많다. 그 중 대부분은 비열하고 추잡하다.”라고 주장을 했다.

베이컨의 주장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제도에서) 축적된 돈은 모두, 피와 더러움으로 오염된 물건이다.”라는 주장을 연상시킨다.

베이컨의 말대로라면 빌 게이츠는 비열하고 추잡하다.

하지만 전 세계가 그를 비열하고 추잡하다고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르크스 말대로라면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물건지만, 중국인까지도 달러로 국가 재정이 탄탄한지 부실한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또한, 현재 중국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자가 돈을 축적하는 과정은 그 정당성에 있어서 미국인들보다 수상한 점이 훨씬 많다. 중국 부자가 돈을 축적하는 과정을 보면 집권자와 '손잡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존슨 전 미국 대통령은 "가난이 죄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근거는 오히려 가난이 죄악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버나드 쇼 는 그의『바바라 소령』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난이 한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는 이렇다. 그를 허약하게 하고, 무지하게 하며, 질병의 대상이 되게 한다. 또 초라하고 못생긴 전시품과 더러움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게 한다. 또한, 그들이 사는 곳이 도시 곳곳을 빈민가로 만들고, 그들의 딸들이 건강한 남자에게 성병을 옮기며, 그들의 아들들을 병약하게 만들어 존엄성을 잃게 하고, 겁쟁이에 허영 가득하고 어리석으며 잔인한 존재로 변하게 하여 억압과 영양실조로 생기는 모든 결과를 초래한다.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인류의 빈곤현상은 용서받을 수 없다."

헤겔의 견해는 버나드 쇼 글에 대한 주석과 다름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민중들의 생활이 일정한 수준 즉,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수적인 자연적 조정이 가능한 수준이하로 떨어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정상적, 자존적 감정을 상실했을 때 천민이 생겨난다. 이와 동시에 불균형한 재산은 더욱 쉽게 소수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가난 자체가 사람을 반드시 천민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천민은 가난과 하나라는 감정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부자 · 사회 · 정부 등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다. 이밖에 이런 정서와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우연성에 의지함으로써 사람들은 경박하고 방탕해지며 노동을 싫어하게끔 변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주적인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구걸하여 생활하는 것을 자신의 '특권'으로 여기게 되는 나쁜 버릇이 생긴다. 그 누구도 자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에서 어떻게 빈곤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빈곤계층이 국가나 정부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이유가 있다."

그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답해야 하나?

1864년 링컨은 '미국 뉴욕노동자연합회'에서 "일부 사람들의 필연적인 부는 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른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합법적인 조건에서 개인이 잘 살고자 하는 희망은 우리의 사업에 거대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권력을 돈으로 사거나 권력과 결탁하는 것은 사회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현재 이런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지금도 비일비재한 현상이다.

링컨의 말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링컨이 만약 지금의 중국 국가주석이라면 수많은 궁핍한 중국인들 중에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빈부에 대한 내 개인적 견해를 말하자면, 돈이 인생을 편안하게는 만들지만, 삶의 질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비쩍 마르고 늙은 대머리의 남자나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꽃같이 젊고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하면, 그건 분명히 돈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마음속으로 본인의 행복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지 의심할 만하다. 그녀도 마찬가지다. 돈이 사람의 현실적인 욕망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실현되는 욕망의 질을 보장하기란 어렵다.

물론 나도 부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결코 아니다.

도리어 나는 늘 빈곤의 이로운 점에 관한 의견을 철저히 경멸했다.

윌리엄 제임스는 "빈곤을 찬양하는 노래를 다시 크게 불러야 한다. 우리는 갈수록 빈곤을 두려워하고, 내면세계의 정화와 구원을 위해 빈곤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멸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고상하고,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말했다.

나는 설령 그가 진심으로 한 말이라 하더라도 이 말은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가 찬양하는 인사들이 모두 고상하지 않고, 빈곤이 그들이 원하는 선택이라 믿지 않으며, 특히 빈곤이 그들의 내면세계를 정화하고 구원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 동의할 수 없다.

세상에 대한 내 견해는 풍족함과 비슷하다. 빈곤은 사람의 성격을 쉽게 더욱 악하게 만들고, 또한 사람의 내면세계를 더욱 어둡게 만들며, 게다가 절망과 증오로 가득차게 만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조금도 내 정신이 비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빈곤의 이로운 점을 장려하는 문화가 많이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장 허황되고 웃기는 고사(故事)는 다음과 같다. 대략 한(漢)나라 말기, 관녕(管寧)과 화흠(華歆)이 동문수학할 때, 어느 날 함께 텃밭에서 김을 매고 있었는데 황금이 나왔다. 관녕은 황금을 기왓장이나 벽돌처럼 보고 여전히 일손을 멈추지 않고 김을 맸지만, 화흠은 황금을 주워 자세히 본 후에 버렸다.

이 고사에서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비난하는지 분명하다.

중국문인 문화의 병태적인 전통은 바로 돈에 대한 병적인 태도를 전파한 것이다.

우리는 중국 문인이 언제나 자신의 가난에 대한 자기연민도 가장 컸다는 점을 알고 있다. 동정과 존경을 많이 받지 못했다면, 이 청렴한 빈곤을 미화하거나 심지어 시적 청렴으로 자신을 위안했다.

나라면 비난의 대상이었던 화흠에게서 교훈을 얻을 것이다. 만약 내가 가진 황금이 너무 많아 더 이상 둘 곳이 없을 정도라면, 적어도 황금을 갖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황금 하나면 한 가족이 수년을 보내기에 충분하다!

하물며 '학문만이 고상하다.'라고 말했던 고대 문인도 결국에는 벼슬길을 걷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소위 벼슬길 인생이란 관복을 입고 호화로운 집에 살며 가마를 타고 하인을 부리며 녹봉을 받는 것을 동경하는 것이 아닌가? 녹봉이 또 무엇인가? 바로 금과 은이다.

나는『요재지이(聊齋志異)』에 나오는 황금에 관한 고사가 더 마음에 든다.

선비가 밤에 책을 읽고 있는데, 여자 귀신이 미모로 유혹하였지만, 선비는 그 귀신의 술책을 꿰뚫어보아 엄하게 꾸짖은 뒤 황금으로 귀신을 유혹해 황금과 함께 창밖으로 던져 버렸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하룻밤 즐거움이나 부와 맞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귀신이든 아니든 그 선의를 믿을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만약 나라면 사람도 황금도 원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돈에 대한 내 소망은 현실적이다.

나는 영원히 내 수입이 지출보다 많기를 희망하고, 내 지출과 소비의 정비례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희망한다. 하지만 내 소비욕망은 트렌드 · 허영 · 사치와는 관계가 없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국인은 음식을 기준으로 생활수준의 높고 낮음을 판단했다. 즉, 먹을 복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 생각했다. 나는 한 민족에게 있어 이것은 매우 불쾌한 기준이라 생각한다.

나는 사람에게 있어 주거환경이야말로 최우선의 생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식탐이 많으면 뇌와 몸이 둔해지고, 고혈압 · 지방간 · 비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뚱뚱한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주거환경이 넓고 밝은지 혹은 붐비고 어둡고 습한지가 오히려 사람들의 정신 상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나는 아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은 사랑할 가치가 있다.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섬세하게 느껴지는 행복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에서 대부분 나타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젊은 한 쌍이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후 서로 사랑하여 결혼한다. 그들이 공동수입과 대출로 주거면적 70㎡의 분양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앞으로 10년 내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도 결코 헛된 꿈이 아니다. 그 후에 남은 돈으로 자신과 자녀를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한다. 그들이 퇴직하면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노후생활을 하고 일 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함께 양로원에 들어가고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평범한 삶이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주거면적 70㎡ + 공동의 월수입 × 위안(元)이다.

나는 중국 현대 젊은이 90%는 이런 평범한 삶을 바라고 있으나 쉽게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10%의 청년에게는 이미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10%의 젊은이들이 이미 이룬 평범한 삶을 90%의 젊은이들이 이룰 수 있을 때, 중국은 진정으로 부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빈부 문제를 논하는 것이 불필요해질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II. 중국 문화에 보충수업이 필요한가?

1980년대 이후 '격차'라는 두 글자가 많은 국민들의 입에 회자되었다.

개혁개방이 시작되어 문호가 점차 개방되고 서구 문화가 서서히 유입되었다. 이렇게 상호 왕래를 통해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문득 자국과 서방 선진국의 차이를 갑자기 발견하게 되었다. 그 차이는 분명한 격차를 의미했고, 그 격차는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 또한 격차에 대한 놀라움과 동시에 '보충수업'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었다.

어떤 수업들을 보충해야 하나?

먼저 경제발전 방식, 다음은 기업관리 방법을 보충해야 한다. 과학연구 수준은 더는 뒤처져서는 안되고, 교육이념도 상대를 따라잡아야 한다. 국민들의 문화적 수준에 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어느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 국민에게 문명인이라는 칭찬을 듣고 싶지 않겠는가?

한 마디로 중국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보충수업은 완벽한 자본주의 수업 이었다. 마침내 중국인에게 자본주의란 엄청난 재앙이 아니게 되었고, 그저 '하나의 강좌'가 되었다. 그러자 수많은 시찰단이 모두 성지순례 하는 마음으로 출국 길에 나섰다. 귀국 후 여러 기관에 다양한 보고가 올라갔지만 놀랄 정도로 견해는 모두 일치했다. 그것은 바로 격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반드시 보충수업을 해야 하는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므로, 과감하게, 신속하게, 사상을 더욱 자유롭게 해야 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다양한 수업을 보충해왔다. 보충수업은 제때 이루어졌으며 또 금기를 깬 면도 많이 있다. 이것들이 중국의 급부상에 촉매작용을 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눈 깜짝할 사이에 20여 년이 흘렀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입만 열었다 하면 격차, 보충수업을 말하며, 경건하게 20여 년 동안 우리자신을 일깨워 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으나, 마음을 울리고 공감대를 불러일으킬만한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사실 문화도 서방 선진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벌어져 있었고, 그 차이는 너무나 컸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마도 우리는 50년 이상 낙후되어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 문화는 유행과 오락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로 유행과 오락적인 요소를 보여준다. 하지만 유행의 겉모습과 오락의 요란함을 걷어내면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다시 말해 유행이 지나고 오락적 요소가 사라졌다 해도 그들의 문화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초석이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세련되고 오락적인 모습으로 현재의 문화를 표현하는 것은 그들과 같아지기 위함이다. 그러나 같아진 후에 들여다보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민족적,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 없어서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끊임없이 유행을 추구하고 오락적 요소를 가미할 수밖에 없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즉, 우리의 문화는 일단 유행과 오락을 빼면 더는 이야기할 것이 없어지고,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뺀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화가 남아있는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모두 문화적 격차로 인해 생겨난다.

인문현상 · 인문의식 · 인문사조를 보자. 인류가 문자를 사용한 이래 오천여 년의 시간 동안 서서히, 그리고 자신 있게 문화의 발전을 완성해왔다. 이 오천여 년 시간 동안 중국의 문화사상은 세계에 부끄럽지 않았다. 설령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상황이 많이 변했다.

서방문화가 인문주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용감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부패할 대로 부패해 몰락이 예정된 봉건왕조의 말기를 맞이했다.

낙후하면 당하기 마련이다. 이 말을 단지 경제 · 과학기술 · 군사 부분이 낙후되면 당한다는 말로 해석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문화가 뒤처져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국가가 낙후된 후의 현상에서 그 역사를 회고해 보면 50년 전, 100년 전 혹은 그 이전의 문화사상에서 그 국가가 결국 정치 · 경제 · 과학 · 군사 · 교육 · 국민 소양 등 많은 부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찌 청나라가 인류역사 발전을 좇아, 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청나라는 자본주의를 재난으로 생각했고, 물론 통치이념에서도 인문주의 문화사상을 증오했다. 그래서 나는 청나라를 칭송하는 문화현상을 극히 싫어한다.

내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봤을 때 청나라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고 인문주의 문화사상을 증오하고 있었다.

5·4운동에 이르러 청나라의 폐허 속에서 중국인이 마침내 인문주의 문화사상의 기치를 내걸기 시작했을 때, 서방 자본주의 문화 사업은 이미 초기 인문주의의 계몽과 보급을 끝낸 상태였다.

자유가 추구하는 것은 인성의 권리이다. 평등이 추구하는 것은 삶의 권리이다. 박애주의는 사회원칙을 주장한다.

서방의 초기 인문주의가 말하고자 하는 '평등'은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만약 한 국가의 법률조차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다소 위협적이다.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인문주의가 주장하는 평등의 최저기준도 되지 못한다.

서방의 초기 인문주의가 말하는 '평등'이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국가에 교육을 받을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생명치료의 권리와 기타 각종 사회보장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당연히 국가의 최고 의무임을 말하고 있다.

5·4운동은 중국인이 자국문화에 내린 극약 처방이다. 그 잘잘못을 여기서 따지지는 않겠다. 그러나 5·4운동이 인문주의에 실패한 문화 계몽운동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후 군벌이 할거하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며, 여러 해 내전이 지속되었다. 또 국가의 통치자가 빈번하게 바뀌어 어떠한 문화사상도 발전하기 어려웠다. 문화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었고, 곳곳에 빈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그 이후에 일본군이 쳐들어와 강산을 파괴했고…

그 다음은 내전…

문화가 언제 숨 돌릴 겨를이 있었는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49년 이후 중국은 계급투쟁에 도움이 되는 주류문화 단계에 들어섰다. 인도주의조차도 문화가 피해갈 수 없는 지뢰와 같은 위험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문화에 강력한 비난을 받는 '반동(反動)' 문화 사상이 되었다.

그때, 서방국가의 문화는 이미 포스트 인문주의시기에 들어섰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형상을 업그레이드한 문화 구성 시기에 들어선 것이다.

1980년대 중국 문화의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긍정적인 면을 한데 모아보면, 그것은 서방의 많은 문화 지식인들이 일찍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낸 것들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것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위고라든지 안데르센이든지 그들이 170 ~ 80년 전에 계몽한 문화사상은 170 ~ 80년 후의 모든 중국 문화지식인이 함께 이루어낸 문화사상 성과보다 더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1980년대의 중국 문화사상은 다소 인문주의 성향을 띠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두 차례 정치운동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봤을 때, 그 후 일부 상황은 문화가 지나치게 억압받고, 사상이 지나치게 막혀있었던 시대의 결과물이다.

상업문화 시대가 도래했다.

유행문화 시대가 도래했다.

오락문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의 근현대문화의 연결 고리에서 단절되어 비어있던 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비어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나아가 다음 세대와 또 그다음 세대가 상업적 · 유행 · 오락적 문화를 마음껏 즐길 때, 누가 우리에게 어떤 문화의 초석이 마련되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초석이 탄탄한가? 또는 없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그것은 곤혹스러운 일이다.

한 국가의 상황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과거 50년, 100년, 200년 나아가 훨씬 더 이전의 문화의 변화과정이다.

우리 문화의 그 50년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인문주의 사상방면은 너무나 취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다. 너무나 세련되고, 상업적이며, 오락적이며, 패스트푸드 식 문화시대에 이 부분을 보충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V. 백년 문화의 표정

새로운 천년이 열리는 지금, 과거를 되돌아보면 중국은 백여 년 동안 문화가 끊임없이 생겨났다. 때로는 새로운 사상의 번개가 낡은 의식의 안개를 걷어내는 것 같았다. 문인의 외침도 있고, 유생들의 숭고한 희생도 있었다. 어떤 시는 격문이 되었고, 어떤 노래는 전쟁터의 북소리가 되었다. 노신(魯迅)이 용맹하게 내던진 창, 문일다(聞一多)가 피로 점화한『홍촉』,『신청년』은 강국의 길을 모색했고, '신문화운동'은 공존할 수 없는 부패한 정치를 타도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

역사는 막을 내리고 선조들의 그림자는 멀어져 갔다. 시대가 점진적으로 만들어낸 흔적 속에서 백여 년의 문화는 어떠한 상태로 축적되어 온 걸까? 또 우리에게 어떠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을까?

힘없는 나라의 문화의 표정에 어떻게 근심이 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처량하지 않을 수 있을까?

힘없는 나라의 문인들이 보여주는 문화 속에는 당혹해 하는 모습이 어떻게 없을 수 있으며,『방황』하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있지 않을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그 탁월한 명석함으로 어리석은 척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나긋나긋한 속삭임을 버리고 투사처럼 한을 호소하지 않겠는가?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여러 번 상처를 받고 동료들의 목숨이 사라져갈 때 문인의 은둔생활 또한 당연한 것이었다.

만약 우리의 눈이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역사의 더 깊은 먼 곳으로 되돌아가 본다면, 은둔이라는 선택이 중국 고대 문인들에게 있어 일종의 '유행'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쯤에서 우리는『요재지이』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포송령(蒲松齡)이 세상을 떠난 지 300년 가까이 되었고,『요재지이』는 230여 년 전에 발표되었다.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 책을 먼저 논하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명저 중에 하나이고, 100여 년의 중국 문화 속에서 포송령이 살았던 그 시대의 숨결이 깃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있기 때문이다.

포송령이 붓끝에서 묘사한 '어여쁜 여자 귀신과 요염한 구미호'는 거의 내 청소년기에 꿈속에 자주 등장했던 흠모의 대상이었다.

『요재지이』는 현실에서 벗어난 작품이었다.

포송령이 현실에서 벗어난 것은 자신이 처지한 시대의 염증을 느낀 것에서 비롯되었다. 자기가 살던 세상을 싫어했던 것은 벼슬길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이다. 만약 그가 벼슬길이 순조로워 부귀영화를 누렸다면 우리는 아마『요재지이』를 읽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요재지이』는 시대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다.

포송령은 그가 싫어했던 세상을 등지고, 400여 편의 소설을 통해 자신과, 그 비슷한 문인들이 동경하던 '가상현실'을 만들었다. 아름답고 착한 여자귀신들을 흠모했던 사람은 모두 자신과 비슷한 문인들이었다. 그가『요재지이』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거의 그는 평생을 요괴들 이야기에 심취해 살았고, 평생 동안 그의 붓끝에서 탄생한 아름답고 착한 여자귀신들과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그가 결국 등진 세상에서 살았고, 그래서 그이 등에 있던 당시의 혼탁함이 그의 어깨를 넘어 그의 소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요재지이』에는 그 남자들 꿈속에 맴도는 여자귀신들 이외에도,『촉직(促織)』 · 『몽랑(夢狼)』·『석방평(席方平)』등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었고, 포송령은 이를 통해 당시의 부조리를 보여주었다.

『요재지이』는 중국 고대문화의 표정 중에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작가는 차갑게 그가 처한 시대를 나타내면서도 그의 붓끝에서는 여자귀신들을 따뜻하게 표현했다.

『수호지(水滸)』는 중국 백년 문화 전기에서 가장 적나라한 표정을 짓고 있다. 수호지는 그 적나라함 때문에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금기서적이 되었다.『수호지』는 원말 명초(元末明初)에 씌어져 송나라의 '반민 영웅'을 노래하는 작품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청나라 말기에 더욱 커졌다. 이는 '산에 비가 막 쏟아지려는지 누각에 바람이 가득하다.'는 것을 암시했다.

『홍루몽(紅樓夢)』은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핵심 줄거리이지만 읽고 나면 읽는 이에게 흥망성쇠의 허탈감을 느끼게 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밖에도『유림외사(儒林外史)』·『관장현형기(官場現形記)』·『이십년목도지괴현상(二十年目睹之怪現狀)』·『로선유기老蟬游記』·『얼해화(孽海花)』등은 백년문화의 전반기를 비난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금병매(金瓶梅)』는 중국 백년 문화 전기에서 가장 평가하기 어려운 표정 중 하나였다. 만약 금병매가 당대 현실을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후에 탄생한 아주 많은 '애정 소설들'은 백년 문화 전반기에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문화가 쇠퇴하는 가운데 교태를 부리는 표정을 짓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백년 문화 속에는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페이지가 있었다. 그것은 중국 근대사에서 정치사상가가 탄생한 시기였다.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위대한 이름이 바로 손중산(孫中山)이다. 비록 그의 이름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했지만, 그전에 나오는 정치사상가들 보다 기념할만한 가치가 더 컸다. 왜냐하면 그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고, 그것을 거의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 백년문화의 표정은 그 후로 엄숙한 표정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엄숙한 표정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이 때문에 '5.4 운동'과 '신문화 운동'이 있을 수 있었다.

중국 백년 문화 표정 속에서 신문화 운동은 감격, 격려, 자신감으로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작가 노신의 표정은 가장 개성적이었다.『광인일기(狂人日記)』에서는 귀를 울리는 큰 목소리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깨웠고,『방황(彷徨)』에서는 정신적 고뇌를 생생하게 묘사했으며,『아큐정전(阿Q正傳)』과『무덤(墳)』, 그리고『납함(吶喊)』에서는 크게 울부짖었다. 그의 냉철한 눈이 바라보는 깊이를 우리도 볼 수 있었다.

'백화문(白話文)'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신문화 운동 중의 한 사건이라고도 여길 수 있었다. 만약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도 백화문을 주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극단적인 사람 중의 한 명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문언문(文言文)'의 매력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국방문학'과 '민족혁명전쟁의 대중문학'에 대한 논쟁은 현대 문학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화제였다. 만일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노신과 '네 사나이' 중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누구를 지지했을까?

이는 아마 현대 문학사에서 가장 필요 없고 실질적 의미가 없는 논쟁이지 않을까?

'내부적 손실'은 늘 똑똑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혁명 문학 · 구국 문학 · 대중 문학 이외에 다른 작가들도 분명 존재했다. 그들은 여러 문화장르에 기여했고, 문화 전반에 걸쳐 소프트한 영향을 미쳤다. 그들로는 예를 들어 임어당(林語堂, 나는 최근에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서지마(徐志摩), 주작인(周作人), 장애령(張愛玲) 등이 있다.

그들의 문학은 중국 현대문화 표정 속에서 가장 초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주자청(朱自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나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예전부터 매번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들의 문학을 봐왔다.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 하면서 한가로이 문학을 집필할 수 있는가?

지금에 와서야 마침내 문학과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그들 자신의 '성품'이 묻어나 있었고, 또한 그들의 표정이 무심코 드러나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작가와 문화인이 마치 문학과 문화의 주인 혹은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 규율과 진상은 아마도 반대였던 것 같다. 어쩌면 작가들과 문화인들은 단지 문학과 문화의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다. 때로는 '임시직' · '계약직'일 뿐이었고, 때로는 '평생직장'일 뿐이었다. 문학과 문화의 '천성'은 본래 사람을 즐겁게 하여, 소일거리를 제공했다. 다시 말해 이는 문학과 문화의 특별한 본질이었다. 만약 한 쪽이 편안하다면 문학과 문화의 '천성'은 바로 거기서 발휘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임어당이 살았던 시대가 노신과는 상반되게 초연했던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다. 굳이 서지마의 낭랑하고 거침없는 시와 유석(柔石)의『노예가 된 어머니(爲奴隶的母親)』를 비교하여 서지마를 하찮게 여기지 않아도 되었다. 주자청과 문일다 중에 누가 더 역사에 남을 자격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문일다의『홍촉(紅燭)』이 나를 더욱 감동시켰고, 더욱 경건하게 만들었다.

역사 속에서 시대의 안개를 거두고 나니 그곳에는 남을 가치가 있는 소설 · 시 · 산문 · 수필만이 남겨져 있다. 그것들이 문학과 문화의 모든 표정 속에 녹아내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연안에서 번영한 문학과 문화는 중국역사 이래로 가장 독특한 정취의 문학과 문화이며 백년 문화 표정 중에 가장 순수하고 찬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와 가장 최근의 가장 큰 이상이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의 천진난만함은 백년 내에 전대미문 했다. 그것이 '천진'하다는 것은 그 목적이 단순했기 때문이며 그것이 '난만'하다는 것은 거기에 긍정적인 면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건국 후 17년 동안 문학과 문화의 표정은 마치 '착한 어린이' 같았다. 이따금 '장난꾸러기'의 면도 있었지만 눈치를 주면 정자체를 취했다.

'문화 혁명' 중에 문학과 문화의 표정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 백년 문화 가운데 가장 진실하지 않으며 사람을 가장 혐오스럽게 만드는 표정이었다.

'신시기 문학'의 표정은 유난히 깊이가 있으며 진정성이 느껴졌다. 신시기 문학은 국가를 신중하게 생각했고, 자신에 관한 수많은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다.

80년대 후기 문학과 문화의 표정은 안절부절못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불안한 국면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90년대 전기 문화의 표정은 '비행 청소년'과 같았다. 그 표정은 당신이 수많은 방법을 생각해 놓았다 하더라도, 나는 빠져나갈 묘책이 있다는 식이다.

90년대 후기 문화의 표정은 '자아 방종'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비행 청소년은 이미 독립적인 청년이 되었고, 더 이상 무언가를 맹신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점차 구속을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자아 방종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갈망했다. 어떤 자유방임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하나같이 조급해하며, 또한 점차 세상을 우습게 여겼다.

내 생각에는 앞으로 3 ~ 5년 이내에 중국현대 문학과 문화는 자아 방종에서 점차 안정된 '성품'으로 나아갈 것이다. 결국 현대 사람들은 소란스럽고 경솔한 문학과 문화의 국면을 장기적으로 직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학과 문화의 주요 본질은 일정한 양과 질의 창작 속에서 묵묵히 지탱되어야지 한순간의 번영 및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상황은 이런 것 같다. 백년 문화는 거대한 '폭죽'과 같다. 폭죽이 습기를 먹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면 제대로 터지지 않고 찬란하게 하늘을 수놓을 수 없다. 그러나 띄엄띄엄 빛을 바라는 불꽃은 역사를 환히 비췄고, 우리의 눈을 비춰주었다. 우리가 이 폭죽의 마지막 '내용물'이다.

우리가 열심히 터트릴 폭죽은 천년 역사의 교차점에 놓여있다.

문학과 문화가 자유로운 경지에 근접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문학과 문화는 무엇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이것은 어떠한 표정을 지을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가치일까?

새로운 천년 속에 새로운 백년은 답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V. 문명의 척도

일부 어휘들은 한없이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마치 우주와 같고,

또한 시간과 같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정확히 설명하기도 어렵다.

사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도, 어느 정도 기본상식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생활에서 우주나 시간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듯하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주와 시간은 하나의 현상 혹은 하나의 개념으로, 이미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 범주 속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층 밖은 우주공간이다.

1년 12개월, 1일 24시간, 1시간 60분, 1분 60초

이런 기본 인식은 우리가 어떤 공간에 생존하고 있으며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지 확인시켜준다.

이런 기본 인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이는 개체로서의 인간이 사실은 매우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생은 한 번뿐이고, 먼지와도 같다(人生寄一世, 奄忽若飆塵).'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사람은 쉬이 늙어도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人生易老天難老).' · '시간은 곧 하느님이다.'라는 말은 시간이 인류에게 가하는 수많은 시험에 대해 경외심을 가져야 함을 알려준다.

이는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다.

보통사람은 위와 같은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

'문명' 역시 이와 유사한 어휘이다.

동서양 모두 문명에 관한 약사(略史)가 있다. 모든 책이 호킹의『시간의 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보다 훨씬 더 두껍다. 세계 각국에도 문명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인류의 인식 과정 역시 매우 흥미롭게도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주에 대한 인류의 인식은 우주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시간에 대한 인류의 개념은 응용이라는 측면에서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비문명 현상에 대한 혐오, 반감이 정서적, 심리적인 것에서 시작되어 나아가 사상적, 정신적인 측면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 가장 비문명적인 현상이라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진정한 문명이 시작된다.

일례로 호킹의 시간 개념에 대한 해석은 우주 대폭발부터 시작되었다.

문명의식이 과연 우리 인류의 사상방식과 행동방식을 어느 정도 변화시켜 왔는지, 앞으로 계속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나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분명히 사람을 원래의 자신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 줄 것임을 안다.

1980년대 나는 임근란(林斤瀾)과 유계(柳溪)라는 두 명의 작가와 프랑스를 방문했다. 비바람이 불던 어느 날, 우리는 차를 타고 시골 길을 지나고 있었다. 우리 앞에는 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그 차 뒤 창문을 보니 그 안에 가족이 타고 있었다. 남편이 운전하고 옆에는 부인이, 뒤에는 어린 여자아이 두 명이 있었다. 우리 창문에 앞 선 차량이 일으키는 먼지가 쌓였지만 굽어진 시골 길이라 추월을 할 수도 없었다. 마침내 추월할 수 있는 커브 길에 다다르자 앞차가 멈춰섰다. 운전하던 남편이 차에서 내려 우리 차로 걸어왔다. 우리 차를 운전하던 기사는 프랑스 외교부의 통역사인 프랑스 청년이었다. 그가 차 유리를 내려 상대방과 프랑스어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그 차를 추월해서 앞으로 갔다.

나는 통역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라고 물어봤다.

그는 “우리보고 먼저 앞으로 가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물어봤다.

그는 “자신의 차가 계속 앞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불공평하대요. 자신의 차가 계속 앞서 가니까 신경 쓰여 마음 편히 운전할 수 없다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그 프랑스 아버지의 두 딸이 생각났다. 그녀들은 분명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레 교훈을 받았을 것이다. 즉, 자신의 이익만 생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는 것이 반드시 당연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그 다음 날, 우리 차는 길에서 농가의 개 한 마리를 치었다. 그저 조금 쳤을 뿐이라 그 개가 짖으며 다시 뛰기 시작했을 때 보니 뒷발을 조금 절뚝거렸다. 프랑스 청년은 차를 세우고 그 개 주인을 찾으러 갔다. 그리고 10여 분 후에 돌아와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30분이 지나서 우리는 작은 도시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러자 프랑스 청년은 중국어로 다시 그 개 주인을 찾으러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하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그 개 주인을 찾았을 때 보니 그 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 우리는 정중하게 사과한 뒤, 주인에게 명함 · 차 번호 · 운전면허 번호를 남기고 왔다.

그 개 주인을 만나고 돌아오니 프랑스 청년은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듯 이어지는 여정에서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나는 문명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일부로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명은 우선 자신을 기쁘게 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이었던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 우리의 통역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했던 것처럼 말이다.

중국은 국토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다. 하지만 인구의 80 ~ 90%는 사실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소강생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부패 · 관료주의 · 높은 실업률, 나날이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등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현상은 중국인의 문명을 최저기준선에 머물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문명에 관해서 우리 중국인에게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되는 요구를 할 수 없다.

우리의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기대는 모두 문명의 최저기준선에 놓여있어야 한다. 그러나 설령 문명의 최저기준선에 있다 하더라도 중국인들이 스스로를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예를 들어 물에 빠져 발버둥을 치는 사람을 구경만 하고 즐기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앞으로 구경만 하고 구조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아무 곳에나 침을 뱉고, 길에서 욕하며 싸울 때, 이전에는 옆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린아이가 있어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아이 앞에서만이라도 조심해야 한다. 중국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과 같은 문제는 또한 어떠한가? 우리는 그럴듯한 불변의 진리라는 식의 말을 지나치게 많이 들어왔다.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한 것처럼 행동한 결과, 공공버스에서 양보하지 않으며, 아무 데나 침 뱉는 것이 통쾌한 일이 되어버렸다.

중국은 소위 문명이라는 심층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즉, 문명의 개념을 고차원적 측면으로 봤을 때 '마음의 편안함'이라고 말한다면, 이 문제는 바로 문명의 최저기준선에 있는 사람들의 높은 기대를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비누를 사용하지만 비누라는 말은 거의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런데 문명이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많이 입에 올리는 이유는 '문명'이 아직 우리 생활에 자연스레 스며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많은 아버지가 그 프랑스 아버지처럼 자연스러운 문명적 행동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VI. 중국 인사기록부 제도에 대한 의문점

모든 중국인은 사실 호적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신분증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약력 기록부이다. 개인약력이 기록되어 있는 '호구부'는 중국인의 인사기록부이다. 중학교 때 발급되는 호구부는 평생을 중국인과 함께한다. 호적은 중국인의 인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여 년 전에만 해도 호적은 그야말로 우리의 일생을 좌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호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그 시절 도시인에게 가장 엄격한 처벌은 호적말소였고, 이런 처벌은 항상 형법과 동시에 집행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법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일부 도시는 호적제도가 완화되었는데 이는 시대의 발전인 셈이다.

이제 중국인의 또 다른 호적인 '호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만약 누군가의 인사기록부에 조직(예를 들어 공청단 지부 · 공청단 위원회 · 당 지부 · 당 위원회) · 직장 · 직장상사 개인의 명의로 자료가 추가되면서 평상시 혹은 특정시기의 업무태도 · 생활태도 · 도덕성 · 정치적 언행 등에 대해 왜곡하고 악의적인 어떤 '결론'이 추가된다면, 심지어 사건의 경위가 조작되었음에도 이것을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만약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 예를 들어 문화혁명이 끝나기 이전에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의아해하는 중국인은 없었을 것이다. 예전의 중국인은 이런 상황을 목격해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다. 과거 중국인의 파일에 첨부되는 각종 문서는 조직 · 직장 · 상사를 대표했기에 누구도 그 진실 여부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거짓도 진실이 될 수 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문화혁명시기의 경우, 많은 사람에게 자백을 강요했고 이런 자백이 이력기록부의 근거가 되었다.

복단 대학의 모(某) 교수는 서경현(徐景賢)과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고, 그들은 운 좋게 한방을 썼다. 서경현은 귀신을 무서워하면서도 귀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하필이면 그 교수는 귀신 이야기에 능했고, 서경현의 간곡한 부탁에 못이겨 이야기 몇 개를 들려주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모 교수는 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화혁명시기에 조사 대상이 되었다. 취조를 받던 그는 완전히 혼이 빠져버렸다. 알고 보니 그의 인사기록부에 첨부된 자료에 '지도자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적혀있었다. 지도자가 귀신을 무서워하는데도 지도자에게 귀신이야기를 들려줬으니 당연히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에 누군가의 언질로 모든 상황을 파악한 그는 사실대로 자백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 '나쁜 사람'이 되었다. 그 후 그는 농촌으로 하방되어 교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곳의 가난한 농민들은 그를 불량배로 생각해서 모두 그를 멀리했다.

아동영화제작소의 한 아주머니는 젊은 시절 인사기록부에 반 페이지 가량의 내용이 첨가되었는데 그중 한 줄이 '자주 화교와 붙어 다니며, 나쁜 짓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명확한 기한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관련 법 조항도 없으며 죄명도 뚜렷지 않은 이 한 줄의 기록은 그녀 인생에 어처구니없는 타격을 주었다. 그녀의 파일을 본 모든 지도자는 그녀를 '품행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겼다. 실제로 그녀는 화교 한 명과 자주 함께 다녔는데 그 사람이 그녀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영화계의 오래된 동료 한 명이 별세했을 때에 나는 그의 소전(小傳)을 쓰기 위해 그녀의 인사기록부를 보게 되었다. (이미 작고한 사람의 문서는 기밀이라 볼 수 없었다.) 그 중 편지 한 통에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편지는 그녀가 젊었을 때 자신의 친오빠에게 쓴 것으로 누렇게 바랜 편지지는 금방이라도 부스러질 것만 같았다. 그녀의 친오빠가 당시 홍콩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편지는 정치혐의의 증거가 되어 그녀의 인사기록부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사건이 문화혁명 이후에 발생했다면? 오늘날 폭로되었다면?

사람들은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잘 믿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었고, 나 역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

1990년 4월부터 12년 간 파일 한 부가 내 인사기록부에 추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얼마 전 전근발령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자로 '본인은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적혀있었다. '인정'도 모자라 '모든 것'이라니! 그러나 12년 동안 누구도 나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본 사람은 없었다. 그 종이에는 내 이름이 찍혀있었고 그것은 곧 내가 서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 당시 아동영화제작소의 공장장 이름과 상사의 서명도 있었다. 그 공장장도 나처럼 그 사실을 12년 동안 전혀 몰랐다고 한다. 게다가 공장의 도장도 찍혀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작고한 당시 인사 담당자였던 부공장장을 제외하고 아동영화제작소 지도자를 맡은 사람 중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현재 조사를 통해서 직장명의와 공장장 명의를 도용한 파일 한 부와 인사규율과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파일 한 부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

이 자료가 얼마나 사실과 어긋나고,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할 필요도 없다. 다만 한 가지 반드시 하고 싶은 말은 내 삶의 원칙, 어려서부터 받은 가정교육, 성장의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나는 언제나 책임감 있는 태도와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공장에서의 직책상 나는 사람들의 이전투구를 구경만 할 수는 없었다. 내가 나서는 것이 아예 담당자가 없는 것보다는 나았고, 당시나 현재 그 어느 시점에 파악해도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문서는 그 부분마저도 왜곡하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모든 장급 이상 간부가 얼마나 놀랐고 화가 났는지 말할 필요도 없다.

당시 지도자들 내부의 일부 갈등이 그 문서를 사실로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이후 나에게 일어난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또한 말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도 많은 사람에게 소위 '정치적 결론'을 내린 적이 있고 지금까지도 그들의 인사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다. 문화혁명시기 내가 농촌으로 가기 전에 학급 주번으로서 군 선동대와 함께 우리 반 50여 명 학생의 문화혁명 태도를 평가했다. 나를 포함한 학생 두 명, 군 선동부원 한 명과 학교 개혁위원회 선생님 한 분이 있었다. 그 평가가 우리 반 모든 친구의 이후 10년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당시 내 '권력'을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나를 괴롭혔던 몇몇 친구들은 어쩌면 어떤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정치기록부'에 이름을 남길 가능성도 있었다. 나는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그들이 외지에서 일할 때, 그들을 대신해 증거를 모아서 그들의 이름이 정치기록부에 남지 않도록 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내가 이렇게 했기에 선생님과 군 선동원은 내 인사기록부에 '다른 사람에는 관대하지만, 본인에게는 엄격하다.'라고 한 줄 적었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앞으로 현재의 인사기록부 제도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변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본인 인사기록부에 무엇이 적혀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누가 기록했는지 본인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 게다가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보고 의문이 들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면 그것은 경우가 좀 다르다.

왜 지금은 변할 수 없을까?

현재 나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연령대의 많은 중국인들의 인사기록부에 괴이한 문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 모르는 것도 좋다! 모두 알아버리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나? 역사의 흔적은 때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나는 모든 중국인이 본인 인사기록부를 보고 언제든지 무엇이 적혀있는지 보며 마치 도서관에서 참고도서 한 권을 빌리는 것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조속히 누리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런 날이 오면 이는 중국이 한 단계 더 진보했음을 상징하리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VII. 누가 휴지통을 비워야 하나?

쓰레기가 가득 찬 휴지통 한 개가 교실 문 앞, 교단 바로 옆에 있었다. 내가 교단에서 몸을 옆으로 조금만 돌려도 휴지통이 보였다. 휴지통은 계속 그곳에 있었고, 또한 그곳이 제자리였다.

휴지통은 항상 꽉 차 있었다. 빨대가 꽂혀있는 음료수병이나 팩, 과자봉지, 빵봉지, 아무렇게나 구겨진 종이 등등 때문에 휴지통은 항상 산봉우리처럼 솟아 있었다.

교실 입구에 휴지통이 없는 것은 마치 집 현관에 슬리퍼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배려가 없는 것이고, 교실 입구에 산처럼 쌓인 휴지통은 마치 집 현관에 너무나 더러운 슬리퍼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신경 쓰이게 한다.

매번 교실로 들어올 때 나는 '휴지통은 가득 차야만 비우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예를 들어 "누가 좀 가서 휴지통 비우고 올래?"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다. 내가 이렇게 말만해도 누군가 바로 휴지통을 비우러 갈 것이다.

만약 내가 혼자 묵묵히 가서 휴지통을 비운다면,

이것은 '행동'이다. 솔선수범의 의미이다.

나는 말보다 행동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두 번 행동으로 옮겼다. 세 번째도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학생 한 명이 나를 대신해 휴지통을 비우고 왔다.

그는 교실로 돌아와 나에게 "교수님, 휴지통을 비우는 일은 당연히 직원이하는 일이에요. 다음부터는 여자 사환에게 말씀하시면 돼요."라고 말했다.

강의동 밖으로 몇 걸음만 걸어나가면 바로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휴지통을 비우는 일은 1분이면 충분했다.

나도 그 사환을 알고 있다. 볼 때마다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이 책임감이 아주 강해 보였다. 게다가 우리는 서로 우호적으로 예의바르게 행동했다. 내 수업은 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교시에 있다. 그녀는 분명히 아침 일찍 모든 교실의 휴지통을 전부 정리했겠지만 학생들은 1, 2교시사이에 휴지통을 또다시 가득 채웠을 것이다. 그녀에게 내가 말하든 학생이 말하든, 그녀는 틀림없이 여기로 와서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편으로 이런 나의 행동이 그녀로 하여금 자기 일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본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당신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한 학생이 바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내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자, 그는 다시 "만약 우리가 계속 휴지통을 비운다면, 일에 대한 사환의 책임감이 점점 약해지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그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비록 내 사고방식과 거리가 있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나는 또 "'강의실 내 음식물 반입 금지'라는 규정이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네. 그렇지만 규정대로라면 휴지통은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리겠지요. 실질적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세 번째 의견이 나왔다.

"사실 규정은 '강의실 내 음식물 섭취 허용 단, 강의 시 음식물 섭취 금지'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래, 그렇게 바꾸면 더욱 인간적이고, 학생을 더욱 배려하는 것 같구나."

화제가 점점 광범위해져서 학교규정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이어졌다. 내용이 바뀌자 논의의 본질 또한 달라졌다.

나는 "그건 불가능해, 어느 대학교의 규정도 그것을 허락한다고 명확히 명시하지는 않을 거야."라고 말했다.

그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강의 시 음식물 섭취 금지'라고만 규정하겠네요. 그럼 여기에는 '강의 전 음식물 섭취 허용'이라는 뜻이 포함되겠고요."라고 변론했다.

나는 저절로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럼 일부러 빠져나갈 허점을 남겨 놓은 것과 같잖아?"라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는 “교수님, 수업이 너무 많고 시간표가 빡빡하지 않다면야 누가 시간에 쫓기며 교실에서 음식을 먹고 싶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래서 다시 화제가 바뀌었다. 당연히 내용, 그 성격도 변했다. 평상시와 달리 엄숙하고, 심지어 그 무언가를 뒤집으려는 느낌도 받았다.

물론 휴지통에 관해 나와 학생들이 나눈 이야기는 수업 전 잡담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후 그 휴지통이 꽉 찬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으며 지금까지도 누가 수업 전에 휴지통을 비우는지 알 수가 없다.

이때, 나는 세상의 일은 원래 “앞에서 보면 고개요, 옆에서 보면 봉우리라. 멀리서, 가까이서, 높은데서, 낮은데서, 그 모습은 제각각이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 혹은 세상의 모든 이치라 할 수 있다. 이런저런 견해가 결여 되어 있다면 완벽한 견해가 아니다. 때로 겉으로는 완벽히 일치하는 것 같아도 다른 견해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본인의 견해를 표현하고 싶을 뿐이지, 정말로 무엇을 반대하거나 고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본인의 견해를 포기하고 다수의 견해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 일이 어떤 중대한 원칙과 입장에 관련되지 않기만 하다면 말이다. 즉, ‘누가 과연 휴지통을 비워야 하나?’하는 문제는 우리 생활에서 비일비재하고, 사람들 모두 본인의 의지에 따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경청한다면, 본인의 사고방식에 도움이 되는 견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은 세상사에 대해 우리가 늘 주장했던 견해와 대립하는 상황도 생기겠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다시 말해, 조화로운 사회란 세상사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포용하는 사회이다. 포용하지 않으면서 어찌 다원화를 논하고, 다원화되지 못하면서 어찌 화합을 논하겠는가!

내가 살아온 과거 시절에는 ‘누가 휴지통을 비워야 하나?’라는 이 문제가 대학이 아니라 초중고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견해만을 인정했을 것이다. 그것은 대다수가 인정하는 유일한 정답일 것이다. 정확하지 않다거나, 틀렸다거나, 아예 틀렸다거나, 이단 사설이라거나, 이와 같이 나머지의 다양한 견해들은 반드시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누가 휴지통을 비워야 하나?’라는 문제에서 시작해 대학의 규정이 변하기를 희망하고, 그로 인해 심지어 학업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졌다. 오랜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보편화되었고, 단순화되었다. 한 가지 사고방식에 속박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세상사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정답 하나만 있거나 혹은 정답에 가장 근접한 것만이 인정된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심히 틀렸거나 아예 틀린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확한 견해들은 유일한 정답과 대립하게 된다. 사실 세상사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착오만큼이나 그 정답도 다양하다. 세상사에 대한 이러한 견해에 다양한 착오가 존재하기에 다양하고도 정확한 견해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상사에 대해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확한 정답은 여러 가지 정확한 견해의 집합체이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어떤 일에 대해 독단적으로 완벽한 정답을 내릴 수 없다. 세상사람 모두가 경험하는 사랑처럼 말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VIII. 자전거를 지키는 여자

나는 '자전거를 지키는 여자'라는 글을 쓰기로 오래전에 마음먹었다. 사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다. 만약 그녀를 다시 만났다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다. 북경은 너무 넓고, 자전거 보관소도 엄청 많으니 그녀는 아마 다른 곳으로 자전거를 지키러 갔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뭔가 힘든 일을 당했지만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진 않았을까? 어찌 됐든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본 것은 북경의 어느 치과병원 앞 인도에서였다. 한 뚱뚱한 여자가 돈이 들어 있는 그녀의 책가방을 빼앗으려고 했다. 책가방 끈은 이미 어깨에서 흘러내려 그녀의 팔뚝에 걸쳐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가방을 꼭 움켜쥐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매일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요."라고 말했다.

그 녹색 천 책가방은 새것처럼 보였고 북경에서 자전거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 산 것처럼 보였다. 옛날 초등학생들은 저런 책가방을 매고 학교에 다녔지만 지금 도시의 학생들은 저런 책가방을 매지 않은지 오래 되었다. 나는 가끔 길거리 노점에서 장사꾼이 그 책가방을 파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는 대도시 소비사슬에 따라 탄생한 싸구려 물건이다.

자전거를 지키는 여자는 마흔 살 정도로 보였고, 왜소한 체격이며,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다. 뜻밖에도 그녀는 오래된 인민복과 인민모를 쓰고 있었다. 신발은 단추 꼬리가 달린 헝겊신을 신었는데 양말을 신지 않아 발등이 까맣게 타 있었다. 그 인민복과 인민모 모두 정식 군복이 아니라 길거리 노점에서 모두 10위안(元)이면 살 수 있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 옷과 모자 때문에 그녀는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다. 모자챙이 너무 낮아서 그녀의 두 눈썹까지 내려왔다. 모자챙 아래의 두 눈에서는 헤어날 길 없는 큰 두려움이 느껴졌다.

나는 구경꾼들 대화에서 여자 두 명이 싸우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체구가 크고 뚱뚱한 여자는 자전거를 보관할 때, 자전거 앞 바구니에 작은 손가방을 깜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고 놓고 갔었다. 그러나 황급히 다시 찾으러 돌아왔을 때 손가방은 보이지 않았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그 일에 대해 자전거를 지키는 외지에서 온 여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심지어 그녀가 가방을 숨겼다고 생각했다.

뚱뚱한 여자는 "내 가방에 300위안하고 휴대폰이 들어있었어, '이년'이 어디서 당당하게 못 봤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설마 네게 거짓말을 했겠어."라고 말했다.

뚱뚱한 여자는 떳떳하고 당당했다.

자전거를 지키는 여자는 몹시 가련하게 "저는 분명히 못 봤어요. 저는 자전거만 지켜요. 당신이 손가방을 잃어버렸다 해도 저만 탓할 수 없어요. 어쩌면 다른 곳에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뚱뚱한 여자는 있는 힘을 다해 "한번만 더 그따위로 말해봐. 그 땐 가만히 안 있어!"라고 말했다. 끝내 여자는 자전거를 지키는 여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방 안을 뒤졌지만 그 안에는 잔돈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자전거 한 줄에 50 ~ 60대 보관할 수 있고, 보관비는 한 대에 2마오(毛)였다. 따라서 그 책가방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10위안을 넘길 수 없었다.

'탕'하는 소리와 함께 양은 도시락이 자전거를 지키는 여자 발 옆에 던져졌다. 빼앗은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잔돈 10여 위안이 들어있는 타인의 책가방을 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듯 사라졌다. 금전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보상을 위한 행동이다.

나는 북경에서 거주한 20여 년 동안 북경의 중년여성 입에서 처음으로 '이년'이라는 이 두 글자를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이 두 글자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두 글자를 내뱉으면 갑자기 천한 느낌이 들었다.

자전거를 지키는 여자는 몇 걸음 쫓아가다만 채 세워져 있는 자전거로 눈길을 돌렸다. 쫓아가서는 안 되고 쫓아가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돌아와 자신의 도시락을 집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옆에 있는 나무기둥에 머리를 기대고 목 놓아 울었다. 그녀의 이마와 나무기둥 사이에서 그녀의 모자챙이 찌그러졌다…

내가 두 번째로 그녀를 본 것은 북경의 어느 서점 문 앞에서였다. 그 전날 석간신문에 이 서점에서 그 다음 날에 책을 헐값에 판다는 소식이 실렸다.

예상치 못하게 내 손과 검고 마른 여자 손이 동시에『영한대조사전(英漢對照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詞典)』에 닿았다. 고개를 들어보고, 그 상대가 자전거를 지키던 그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뺐다. 나는 우리 집 가정부 연화(蓮花)의 부탁으로 책을 구입하려던 중이었다. 자전거를 지키는 여자는 누구를 대신해 책을 사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또한, 그녀는 그날 그 이상한 인민복이나, 인민모 대신 깨끗한 파란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내가 손을 빼자 그녀는 재빨리 책을 집어서 판매자에게 가격을 물었다. 판매자는 "20위안이요."라고 말했다. 그녀가 "15위안에 안 돼요?"라고 물어봤다. 판매자는 "새 책은 40위안에 팔아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살 거면 빨리 내려놓아요. 다른 사람이 사게!" 라고 말했다. 그녀는 방법이 없다는 눈빛으로 나를 봤지만, 손은 여전히 그 사전을 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돌아섰다.

나는 등 뒤에서 그녀가 "저한테 파세요. 저한테요. 저 정말로 가진 돈이 15위안뿐이에요. 보세요. 15위안 6마오 말고는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보세요. 저 여기서 다른 책 몇 권도 샀어요."라고 부탁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또 등 뒤에서 판매자가 마지못해 "좋아요. 그만하고 15위안 6마오에 가져가세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후 한 상점 앞에서 자전거를 지키는 그녀를 발견했다. 나는 그 상점에 찜솥을 사러 갔었다. 나는 마땅한 크기가 없어 구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100위안짜리를 깰수 없었다. 자전거를 찾으러 갔다. 자전거를 지키는 여자가 그녀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나는 미안해하며 "잔돈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어요, 100위안 거슬러줄 돈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 말을 하면서 나는 그녀가 나를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막 상점에서 나온 사람 주머니에 몇 마오정도 잔돈도 없다고 말하면 그다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이다. 그녀가 나를 멍하니 바라봤다. 마치 어디서 나를 봤는지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아니면 내 말 때문에 잠시 멍해진 것처럼, 무슨 생각을 떠올렸는지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그럼 돈 주지 말고, 그냥 가세요." 라고 말했다. 당시 그녀의 웃음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다수 사람은 이미 의심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던가? 아주 가끔 의심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경우, 이런 상황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다. 당시 내 마음이 이러했다. 당연히 민망해할 사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은 나인데, 오히려 그녀가 멋쩍어했다. 이것만 봐도, 내 경험으로 판단해보면 치과병원 앞 인도에서 일어난 그 일은 이 여자가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건의 진실이 많은 사람이 주시하는 상황에서 은폐되고, 심지어 뒤집어지기까지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자, 나도 모르게 그녀 때문에 나까지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 그 상점에 갔을 때 나는 사려고 했던 크기의 찜솥을 사고 나와 자전거 보관비를 내면서 그녀에게 “지난번에 빚진 2마오, 이번에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내가 자진해서 말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그녀는 내가 자전거 보관비 2마오를 빚진 것을 분명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녀가 나에게 먼저 얘기했다면 나는 민망했을 것이다. 뜻밖에도 그녀는 지난번처럼 또 멍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자전거 보관비 2마오를 빚진 일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같은 책을 사려고 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도 그런 것이, 이곳에 매일 100 ~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전거를 맡기고 찾는데, 그녀가 어찌 나를 특별히 기억하겠는가? 자전거를 지키는 이외지 여자에게 있어 이곳은 치과 앞에서보다 분명 더 많은 수입을 안겨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볼 수 있었다. 아마 그 인민복과 인민모는 그녀가 자전거를 지킬 때 입는 작업복인 것 같았다. 그녀는 여전히 오래된 헝겊신을 신고 있었고, 녹색 천 책가방에다 자전거 보관비를 넣었다.

“됐어요, 됐어요.” 그녀는 멋쩍어하며 억지로 2마오를 돌려주었다. 나는 그녀가 이곳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찜솥 상자를 자전거 뒤 의자에 고정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어디 사람이에요?”라고 물어봤다.

“하남이요.” 그녀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 바로 “우리 집 가정부도 하남 사람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웃음을 지었다.

“북경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아직 6개월 안 됐어요.”

“고향에서 생활은 어땠어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쉽지 않았죠. 게다가 아들도 대학에 갔고요."

그녀는 '대학'이라는 이 두 자를 특히 강조했고 갑자기 얼굴에 자부심이 나타났다.

"그래요, 어느 대학이요?"

그녀는 생소한 하남시 한 대학 이름을 말했다. 나는 최근 일부 성(省) 급(級) 도시에서 사범전문대학들이 팻말을 대학교로 바꿔 달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는 물어보지 않았다.

내가 자전거를 인도까지 끌고 왔을 때에 뒷바퀴 쪽이 가볍게 느껴졌다. 고개 돌려보니, 그녀가 한 손으로 자전거 뒷바퀴를 들고 있었다. 자전거 페달을 몇 번 밟았더니 상자가 떨어졌던 것이었다. 그녀가 달려와서 책가방에서 노끈을 꺼냈다.

북경에 첫눈이 내린 밤, 북영[3]을 퇴직한 오래된 동료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대신해 칭찬 사연 한 통을 써서 신문사에 부쳐달라고 했다. 그가 칭찬하려고 한 사람은 바로 자전거를 지키는 하남 여자였다.

그는 "그 상점에 사진을 찾으러 갔다가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바람에 자전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어. 작은 손가방까지 자전거 앞 바구니에 놓아두었고 말이야."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작은 손가방에 몇백 위안이 있었지만, 사실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300여 장의 오래된 사진을 인화했었거든, 한평생 영화를 찍으며 살아온 내게 그 오래된 사진들은 모두 보물이나 다름없지! 저녁을 먹은 뒤에 날이 저물고 나서야 생각이 나서 황급히 택시를 타고 자전거 보관소로 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 글쎄 내 자전거만 덩그러니 서 있는 거야! 그 자전거를 지키는 여자가 너무 추웠는지 상점 안에 서서 옆문 유리로 내 낡은 자전거를 지키고 있었어. 내 작은 손가방은 그녀의 책가방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었고 사람이라면 감동을 안 받을 수 없잖아, 그렇지? 사람이 사람한테 고마움을 모르면 안 되잖아, 안 그래?"라고 말했다.

북영을 퇴직한 그 촬영기사는 전화로 간곡하게 부탁했다.

나는 두말없이 그의 부탁을 승낙했지만, 이후에 일이 많아서 그 약속을 까맣게

3) 북경영화학원(北京電影學院).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잊어버렸다.

얼마 전에 나는 또 그 상점으로 물건을 사러 갈 일이 있었다. 그런데 자전거를 지키는 사람이 외지에서 온 남자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먼저 “원래 그 자전거를 지키는 여자는요?”라고 물어봤다.

그는 “떠났어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왜요?”라고 물어봤다.

그는 “왜겠어요? 자격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 같은 외지 사람들이 북경에서 이런 일이라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요!”라고 말했다.

그 여자의 처지에 내 마음이 씁쓸해졌다. 이름 없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 아들을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만 벌린 채 더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농촌에 살던 그녀가 도시에 와서 자전거 지키는 것 말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만약 그녀가 북경 다른 곳이나 다른 도시에서 자전거를 지키고 있다면, 나는 그녀가 그녀를 괴롭히는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의 책가방을 빼앗아 간 뚱뚱한 여자 같은 사람 말이다.

같은 하늘 아래 농촌 사람, 도시 사람 모두 평등해야 한다. 때론 약자는 평등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것 같다. 평등이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평등이 종종 너무나 작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X. ‘사실’에 관한 복잡한 감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事實)’이란 두 글자는 인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사람들은 누구나 항상 ‘사실’이란 두 글자와 자주 마주할 것이다. 또한 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이익 집단, 모든 민족, 모든 국가 역시 ‘사실’이란 두 글자를 자주 마주한다. 사람이든 국가든 ‘사실’이란 두 글자를 마주했다면, 심각한 심지어 험난한 문제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에 대처하는 태도는 사람의 품격과 국가의 이미지도 나타내 준다.

고대 한어에 ‘실사구시(實事求是)’라는 말이 있다. 모택동 주석은 예전에 친필로 크게 이 네 글자를 적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각급 당과 정부기관에서 위엄이 느껴지는 액자에 끼워있는 이 네 글자를 자주 볼 수 있다.

‘실사(實事)’와 ‘사실(事實)’은 같은 뜻이다. 모두 ‘한 가지 일이 발생하면 그 진상(眞相)이 있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상’은 실제 상황을 뜻한다.

서양철학의 한 학파는 ‘사실은 그저 한가지 주관적인 인상과 주관적인 결론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주관이 섞여 있다면 다시는 순수한 객관이 될 수 없다. 객관이 이미 순수하기 어렵다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학파는 소위 말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학파의 철학적 관점은 어느 정도 논리학적 근거가 있다. 논리학 자체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변증논리학 · 실용논리학 · 형식논리학 · 통속논리학이 그것이다.

통속논리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논리학이다. 만약 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통속논리학자로 본다면, 격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통속논리학은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을 이야기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적이 있다면, 그 적의 적은 반드시 적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적의 친구도 자연스레 반드시 어떤 사람의 적이 될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또 다른 적은 언젠가는 반드시 적의 친구가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친구가 만약 적과 왕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배신과 같다. 그러므로 적보다 더 위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 적이다.

이런 논리에는 사람 간, 민족 간, 국가 간의 현재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리석음과 웃음거리의 극치이다. 예를 들어 적과 친구할 가능성이다. 적의 친구에게 이해를 얻고, 나아가 적의 친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더 나아가 친구로 발전할 가능성이다. 또한 적과 적이 동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능성이다. 적과 왕래를 하는 친구를 통해 적과의 적대 심리를 점차 해소할 가능성이기도 하다.

“아름다움을 아름답다 말하고, 조금도 과장하지 않는다. 잘못은 잘못이라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는다(美曰美, 不一毫虛美 ; 過曰過, 不一毫諱過).”

이는 해서(海瑞)의 말이다.

현대인 대부분은 해서가 명나라 청렴한 관리라는 것을 안다. ‘청정렴명(淸正廉明).’ 이 네 글자에서 ‘정(正)’은 정직과 올바름을 뜻한다. 정직한 관리 한 명은 당연히 실사구시의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정직한 사람도 그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다른 방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더라도 결국에는 얼마나 올바른지를 이야기할 수 없다. 정직(正直)에서 ‘직’은 ‘곡의봉영(曲意逢迎)’에서 ‘곡’과 반대되는 것이다. 사람의 성품이 만약 ‘곡’하면, 사실에 대한 그의 태도와 입장은 모호하며 서로 상반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많아지면, 사실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거기에 매번 다른 임의적인 해석이 가해진다.

“조금도 과장하지 않는 아름다움(不一毫虛美).”, “조금도 숨기지 않는 잘못(不一毫諱).” ‘조금도(一毫)’는 도저히 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서의 말은 사람과 사건에 대한 사상, 즉 실사구시 사상이다. 이런 사상을 견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대다수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는 결국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접해진다고 할 수 있다. 한 사건이 발생하면 일부 사람은 휩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단호한 태도로 결론을 내리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급투쟁’ · ‘노선투쟁’ · ‘반당’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정치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내부라 할지라도 과거 서로를 무너뜨리는 현상 대부분은 냉혹하고 무정했으며, 후세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실사구시를 교훈으로 삼긴 하였지만 그저 교훈으로 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사구시의 용기로 사실과 차이가 크게 나는 세상의 오심 사건들을 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로잡아야 한다.

특별히 진지하게 생각해 볼만한 규율이 하나 있다. 사건은 이미 하나의 역사가 되었고 당사자도 세상을 떠났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료를 연구하고, 이미 '정설'이 되어버린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당사자의 후손들이다. 그들이 왜 의문을 제기하는 지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간다. 하지만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매번 의심을 받았다. 내가 볼 때, 대부분 그들의 동기는 사실 정치적 요소가 아닌, 문화적 요소에 있다.

문화는 모종의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응집력 · 분석력 · 교화력 · 심미감 등이 그것이다. 또한 수정력도 가지고 있다. 문화는 언제나 사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실에 어긋나는 사건을 수정하려고 한다. 이는 문화의 본능이자 문화의 자각과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문화가 사실의 본질을 묻는 것은 식물이 해를 향하는 본능과도 같다. 이것도 일종의 자각과 책임이라 말하는 것은 사람이 식물보다 고차원적이기 때문이다. 식물은 동정심이 없지만 사람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사건으로 핍박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동정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작고한 사람도 동정한다. 왜냐하면, 후자는 다시 살아나서 본인을 위한 변명을 할 수 없으므로 문화적으로 그들을 더 동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동정은 문화의 양심과 따뜻함을 나타내고, 또한 사람의 양심과 인성의 따뜻함도 나타낸다. 이것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질이지 결코 악습이 아니며, 문화인의 악습은 더더욱 아니다. 또한 당연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어쨌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설사 잠시 금지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금지할 수는 없다.

한 가지 사실은 보편적 마음과 사실의 관계로 예를 들면 사람 마음과 '미추(美醜)'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다. 국가의 현실과 역사가 된 사실이 사실과 근접할수록,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높아지고 친화력도 강해진다. 국민은 즐거운 마음으로 국가를 대하고 자연스럽게 자국에 대한 영광과 자부심이 생긴다. 이런 즐거움은 계층과 빈부를 넘어서고 물질도 넘어선다. 한 국가의 국민이 물질을 넘어서 느끼는 이러한 즐거움의 지수는 그들의 행복지수에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저명한 문인인 소식(蘇軾)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일은 시비가 있고, 그 일의 진실을 숨기기는 어렵다(事有是非, 義難隱諱).”

“마땅히 일의 시비를 논하여, 그 어려움을 묻지 말아야 한다(事當論其是非, 不當問其難易).”

하지만 어떤 일들은 중국 현실에 비추어 보면 어려운 일이다.

만약 사실과 관련이 있다면 누군가는 해야만 한다. 막상 해보면 결과가 그렇게 또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 국가의 큰 자신감과 포부와 이미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X. 세상에 대국은 없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세계에 대국(大國)이 출현했던 적은 없었다.

여기서 말한 '대(大)'는 광활한 영토, 많은 인구,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품격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많은 부분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도 한 번도 패권을 주장하지 않고 약자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그는 '대인'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덕성이 낮으면 '소인'이다.

'대인'도 타인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만약 본인이 틀렸다면 "제가 사죄드립니다."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군자는 언제나 당당하다(君子坦蕩蕩).'이다.

그렇다. 내가 봤을 때,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러한 국가의 품격을 가진 대국은 출현한 적이 없었다.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도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경제와 군사력 두 분야에서는 강대국이라 할 수 없었다.

나는 CCTV[4] 프로그램 사회자가 미국의 중국 문제 전문가인 여성과 진행한 인터뷰를 기억한다. 그 사회자도 젊은 여성이었다.

사회자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세계적인 지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전문가는 "그 질문은 중국이 이미 강대국이 되었다는 뜻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사회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문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중국은 일찍이 대국이었죠."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의미심장한 반문과 대답은 나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그녀의 입가를 스쳐지나간 미소는 나의 애국심에 상처를 주었다.

미국의 중국 문제 전문가가 보기에 중국은 그저 클 뿐이었다.

---

4) 중국중앙텔레비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우리는 항상 컸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강한 적은 없었다. 오래전 '8국 연합군(八國聯軍)'은 병사 수천 명으로 인구가 4억 5천만인 국가의 수도를 점령했다. 이는 큰 것과 강대한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줬다. 그 후에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은 또 '삼광 정책(三光政策)[5]'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큰 것과 강대한 것의 차이점을 증명해주었다.

현재 중국의 외화보유액은 세계에서 손꼽을만한 수준이다. 이는 13억 국민 대다수를 세계에서 가장 값싼 노동력으로 바꾼 결과이다. 이를 13억이 넘는 인구로 나누어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걱정이 많다. 설령 '태산 같다'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산더미 같다'고 말할 수는 있다. 이런 까닭에, 중국은 비록 크지만 속은 비어있다.

그래서 원자바오 총리는 매번 "지금은 공적을 평가할 때지, 보여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중국은 여전히 개도국입니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 진정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없고, 일부 국가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비난하며, 국제관계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눈치를 주거나 심지어 암암리에 '족쇄'를 채우기 때문이다.

나는 만약 중국이 진정으로 강해진다면,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는 온화하고 선량하며 도리를 아는 '군자국(君子國)'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중국과 중국인들의 이상(理想)이기 때문이다. 화합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유전자이다. 나는 앞으로 세계에서 크고 강대하지만 '사죄'라는 두 글자를 서슴없이 말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중국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오늘날의 중국은 중국이 꿈꾸는 이상과 아직 거리가 있다.

그 전문가의 말과 미소가 내 가슴을 찌른 것은 그녀의 신랄한 말뿐 아니라 일부 중국인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들은 분명히 중국이 이미 충분히 크고 또 강하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오르면 항상 모든 일을 크게 벌이고 고자세를 취한다. 돈이 있다고 거만을 떨고 지나친 사치로 돈을 낭비하는 행

5) 삼광정책(三光政策)이란 과거 일본이 모조리 죽이고(燒光), 모조리 불사르고(殺光), 모조리 빼앗아(搶光) 가는 정책을 말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동은 국정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인들을 경악케 한다. 또한, 중국을 연구하는 외국인의 비웃음이 바로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미국 여성의 입가를 스쳐지나간 그 미소였다.

그렇다면 미국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

비록 미국은 국토가 가장 큰 것도 아니고 또한 인구가 가장 많은 것도 아니지만 미국의 국력, 특히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미국도 강대국의 하나일 뿐이고, 국가 품격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에 미국은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다른 국가에 특수요원 · 스파이 · 암살자를 보냈고 국민을 선동했으며, 정권교체를 시도했고,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세계의 배후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을 가장 많이한 국가이다. 만약 워싱턴 · 링컨 · 제퍼슨 · 루스벨트가 살아있다면 미국 때문에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미국은 떳떳하지 못한 일로 손해 입은 국가들에게 사죄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 암살자를 보내 쿠바 대통령 암살을 지시한 것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었다. 또 암살을 성공시키기 위해 이탈리아 마피아와도 결탁을 했었다. 이는 미국의 품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이었다. 미국은 현재 입에 담기도 부끄러웠던 행동들을 많이 개선했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걸핏하면 다른 나라에 무력압박을 가하는 것은 여전히 오래된 수법이다. 최근 몇 년, 미국은 여러 번 국제전쟁을 일으켰다. 그 전쟁의 옳고 그름은 잠시 제쳐놓기로 하자. 미국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희생당한 다른 국가의 무고한 국민들, 하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지 않는가!

그러나 미국은 한 번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 “미국은 사죄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미국은 국제적인 규탄 목소리에 그저 ‘유감’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미국은 세계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 미국인이 당연히 1등이고, 다른 국가는 2등 · 3등, 심지어 최하위 등급인 사람도 있었다. 사실 이런 국가 의식은 과거 일본이나 독일과도 비슷했다. 또 하나의 사실은, 다른 국가 국민들에 대한 미국 국민의 견해가 몇 대 대통령들, 정치인들보다 좀 더 인간적이라는 점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죄해야 할 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국가는 종합국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국가 품격은 '소인배'이다.

일본은 사죄해야 할 때 가장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국가이다. 소위 말하는 '대일본제국'은 오늘날 다른 국가들이 보기에는 그저 '왜놈들'에 지나지 않고, 게다가 늘 다른 사람들 눈에 수상해 보인다.

영국도 과거에 '대영제국'이라 불렸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자랑했다. 예전에 영국은 패권국가였고, 군사를 남용하여 전쟁을 일삼는 국가였다. 오늘날의 미국처럼 '전 세계'라는 배의 선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미국의 뒤꽁무니를 좇아다니면서 미국에 찰싹 붙어서 수작을 공모하고 미국의 권세에 힘입어 '이인자' 행세를 할 뿐 대국의 느낌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다른 국가에 기생하는 국가는 그 명분이 어떠하든 결국은 크게 발전하지 못한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 옥스퍼드 대학교 · 런던 대학교는 영국에 있고, 셰익스피어 · 초서도 영국에 있다. 또한, 찰스 디킨스 · 조지 버나드 쇼 · 샬롯 브론테 · 아이리스 머독 그리고 대영박물관 모두 영국에 있다. 그것들이 지금처럼 형편없어서는 안 된다.

영국에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독일은 세계에서 과거의 역사를 지워낼 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으로 전 세계에 사죄했다.

비록 슈뢰더가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에 대해 세계인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예리한 통찰력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독일이 그때부터 진정한 환골탈태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북극곰'이라 여겨지던 소련은 분열되었고, 러시아가 부활했지만 다시 '곰'이 될 수는 없다. 북극에는 북극곰 이외에도 종류가 다른 '말라뮤트'라는 대단한 동물이 있다. 말라뮤트는 존경스러울 정도의 인내심을 가진 사막의 낙타와 같은 동물이다. 내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러시아가 말라뮤트 같다.

러시아는 분명 최저기준점에서 벗어날 것이다.

현재 러시아 대통령은 젊은이들에게 민족을 위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호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다. 이는 소비에트공화국일 때보다 인구가 아주 적다는 것을 증명한다.

19세기 이후의 프랑스는 인류의 이상 국가로서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었고, 인류의 근대사상문화인 계몽운동의 발상지라 해도 손색이 없었다. 몽테스키외 · 볼테르 · 디드로 · 루소 · 위고 등 그들의 정신이 인류의 근대사 최초의 공화국에 끼친 영향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크지도, 강하지도 못해 2차 대전이 시작되자 독일군은 식은 죽 먹기처럼 파리를 점령했다. 이는 국가가 사상과 문화에만 의지해 거둔 자랑할 만한 성과로는 파시즘을 감당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가의 출현은 이미 오천여 년이 되었다. 대국은 그저 컸고, 강대국은 그저 강했다. 크고 강하며 게다가 내외부적으로 모범국가라고 할 만한 국가는 아직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소국들은 국가 품격에서 나라는 중국이 오히려 진심으로 경외하게 한다. 벨기에 · 덴마크 · 아이슬란드 · 룩셈부르크 · 노르웨이 · 스웨덴 · 스위스 등이 그 예이다. 비록 그들은 모두 소국이지만 근대 이후 '군자국'에 점점 근접했다. 세계의 화합은 소국에 존재하고 있다.

만약 나에게 현재 세계에서 국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국가 지도자 한 명을 선택하라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덴마크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을 택한다.

그녀는 당대 가장 젊고 예쁜 여왕이고, 세계에서 가장 평범한 여왕이며, 가장 가난한 여왕이기도 하다.

덴마크 왕실은 비영리 기관이고 덴마크 내부에서도 수도와 전기를 절약하는 모범적인 곳이다. 왕실지출이 특히 어려운 시기에 여왕은 문학작품을 번역하여 그 원고료를 경상비로 사용했다. 여왕은 정부에 왕실 연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생활수준을 다른 국가의 국왕 혹은 대통령들과 비교한 적이 없고, 늘 자신의 생활수준을 자국의 서민들과 비교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신분은 비록 국왕이지만 덴마크인들을 한 번도 '백성들'이라 부른 적이 없었다. 덴마크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진심으로 '나의 국민들'이라 칭한다.

그녀는 재주가 많다. 명실상부한 번역가 · 고고학자 · 자수가 · 의상 디자이너 · 브리지 고수 · 발레 애호가이기도 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녀는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즐겁게 임하며, 성실히 ‘여왕’의 본분을 다 합니다.”라고 말했다.

매주 수요일 그녀는 국가에 대해 할 말이 있는 국민 모두를 만난다. 이는 마치 사명감 있는 중국의 인민 대표 대회의 대표 한 명과 같다.

1972년부터 1984년까지 덴마크를 여행하는 관광객 중 덴마크 여왕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코펜하겐 한 길가에서 유유히 자전거를 타고 있는 여왕을 봤을 것이다. 그녀가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모습이었다. 만약 자전거 앞 바구니에 토마토와 감자가 있다면 여왕이 시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일 것이었다. 토마토와 감자는 여왕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그녀가 여왕의 신분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정무를 논할 때에는 급진적인 좌익 인사도 진심으로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덴마크에서는 정치무대를 이용하여 자국의 입헌군주제를 탓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 국가도 ‘입헌’ 없이 왕권만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왕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여왕의 인격적 매력은 덴마크 사회의 화합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플라톤이 1970 ~ 80년대에 살았다면 그는 기뻐하며 “보아라, 저것이 이상국가이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덴마크는 안데르센의 조국이다.

마르그레테 2세는 동화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여왕이다.

겉으로 보면 이 세계는 여전히 대국과 강대국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의 안을 들여다보면 소국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XI.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존중하자

명저『안나 카레니나』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다른 이유로 인해 불행하다.'라는 첫 두 문장을 꼭 기억 할 것이다.

이 두 문장은 중국에서도 이미 명언이 되었다. 최근 나는 강의 요청을 받아 다시 이 책의 일부 단락을 훑어보았다. 책을 덮고 처음 이 두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보았지만, 이 두 문장은 여전히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이었다.

예전에 학생 한 명이 나에게 "왜 이 두 문장이 명언이 되었습니까?"라고 질문한 적이 있다. 나는 "먼저,『안나 카레니나』가 명저가 되었다. 그 점이 바로 매우 중요한 전제인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학생은 다시"『삼국지연의』가 명저가 되지 않았다면, '무릇 천하의 대세는 나뉘어진 지 오래면 반드시 합치고, 합친 지 오래면 나뉘어지는 법이다(凡天下大勢, 分久必合, 合久必分).'는 말이 명언이 될 수 없었나요? 또 만약 범중엄(範仲淹)의『악양루기(岳陽樓記)』가 명저가 되지 않았다면 '천하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뒤에 즐긴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라는 말도 명언이 될 수 없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예들도 많이 들 수 있다. 명언과 명구는 소설이나 운문에서 생겨날 뿐만 아니라, 희극 · 영화 · TV에서, 심지어 법정소송 양측의 변론 중에서도 생겨날 수 있으며, 강연 중에 생긴 명언은 더더욱 일일이 다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톨스토이는『안나 카레니나』이 소설의 처음 두 문장을 위해 30여 개의 문구를 만들었고, 최종적으로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다른 이유로 인해 불행하다.'라는 두 문장을 선택했다. 러시아어로 이 두 문장을 낭독하면 시적 운율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아마 러시아인이 특히 톨스토이를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이유일 지도 모르겠다.

내 대답이 그 학생을 만족시켰을까? 나 자신도 만족시켰을까? 여기에서 명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게 설명할 부분은 아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질문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상이다. 만약 인류가 생각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원숭이일 것이다. 역사에서 어떤 사람이 항우(項羽)를 '목후이관(沐猴而冠)'이라고 비난했다. 항우가 일에 부딪히면 머리를 써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항우의 바로 그런 점을 비난한 것이다.

나의 소견으로는, 잘못된 사상은 서로 비슷하지만 올바른 사상은 각기 다른 올바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올바름과 잘못은 상대적이다. 멋대로 헛소리하는 것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사상'은 여러 가지 나쁜 심지어 사악한 사상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며 자신의 이익만 차리는 것, 세력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 명성을 남기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 마음이 편안한 것도 모두 나쁜, 사악한 사상이다. 그렇다. 내가 봤을 때, 이러한 사상들은 비슷하다. 다시 말해, 이런 사상의 공통점은 한밤중에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때론 천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천지신명께 고맙게도 이런 사상은 지금까지 주류사상이 된 적이 없다. 예를 들어 '독하지 않으면 사내대장부가 아니다(无毒不丈夫).'라는 이 말도 우리가 하나의 사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정말로 이 사상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게다가 이 말은 원래 '도량이 없으면 사내대장부가 아니다(无度不丈夫).'였던 것 같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사람에게 항상 생각하라는 말이 된다.

오늘날까지 인류의 생각에서 생겨난 대부분 사상, 즉 대다수 사람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우리의 행위와 행동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사상은 사회 발전에 유익한 사상이다. 이런 사상은 소수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사상이 아니라 우리 대다수 사람 심지어 모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사상이어야 한다.

우리 중국인은 소수 사람의 생각에 의지해 우리에게 유익한 사상을 제공한다. 사실 의지한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우리 자신의 사고능력을 조금 퇴화시켰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미국의 한 학자가 집필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죽도록 즐기기』에서는 '사람들은 사고와 멀리 떨어져 있고, 모두 오락에 빠져 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락한다.'고 적혀있다. 그 학자는 인류의 사상과 문화는 독재 때문이 아니라, 오락 때문에 죽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경고이다. 나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서로 비슷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만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 모두 자신의 생각에 대한 존중의식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올바른 사상이 인류의 주류사상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사상은 제 나름대로 올바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만들어진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존중하자. 우리는 사상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일 뿐 아니라, 사상을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이기도하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존중하자. 우리는 타인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다른 사상이 사악함이 없다면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이치를 깨닫게 된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존중하자. 우리는 본인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사상이 올바르고, 지혜롭다 확신하더라도, 설령 타인도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사회현상에 불과하며, 심지어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수많은 올바름과 지혜로운 사상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이치를 깨닫게 된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존중하자. 이로써 우리가 오만방자해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온화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소양이 요구하는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존중하자. 이는 우리가 인생 · 사업 · 명리 · 유행 · 사랑 · 우정 · 가족애 등을 대할 때 옛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설교만 듣지 않고, 스스로 독자적인 견해를 같도록 해준다.

우리 모두 이런 세상사에 관한 진상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타인이 타인의 사상을 이용하여 우리를 설득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본인이 본인을 먼저 설득해야만, 본인이 비로소 어떤 사상의 신봉자가 된다.

이 세상에 잎이 자라지 않는 뿌리와 줄기는 없다.

우리의 머리는 사람으로서의 뿌리이고,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고자 하는 염원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줄기이다.

우리는 줄기와 뿌리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왜 사상의 잎을 피우지 못하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존중하자. 이로써 우리는 인류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이 때문에 우리는 또 인류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비합리성이 적어지고 합리성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존중하자. 우리는 이로써 오락은 우리를 동이불화(同而不和)하게 하고, 사고는 우리를 화이부동(和而不同)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존중하자. 사고의 과정과 사고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즐거운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즐거움은 다른 즐거움으로 대체될 수 없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존중하자. 이로써 우리 삶이 더욱 인간적이고, 유쾌하며,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XII. 질책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아버지가 겨우 세 살이 된 아들을 모 국립병원에 유기했다. 친척들은 물론이고 아이 양육에 법적 책임이 있는 아버지조차 백혈병에 걸린 아이의 의료비를 더이상 부담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한 것이었다. 병원 측 설명에 따르면 그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300위안(元)이 필요하고, 게다가 골수이식을 하려면 적어도 30만 위안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이의 아버지는 농민이다. 우리는 중국의 일반 농민이 그렇게 높은 의료비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만약 그 아이에게 10명의 신체건강한 직계가족이 있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아이를 위해 기꺼이 한 달에 한 번 피를 판다고 가정하면 10년 후쯤에나 30만 위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10년 동안 하루 300여 위안의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직계가족이 아이를 위해 헌혈해야 하는가?

정확히 말해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재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라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 사건 담당자조차 카메라를 향해 “그가 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의 가정형편을 보면 오히려 그에게 동정심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중국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는 이런 사건이 우선 ‘혈육의 정’이라는 윤리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사회문제임이 명백하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혈육의 정을 운운하는 윤리적 비난으로만은 부족하다.

방송국은 병원 측 한 남자대변인과의 인터뷰 내용도 보도했다. 그의 표정은 엄숙하다 못해 차가워 보였다. 만약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위원회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인터뷰 중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회를 압박하자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나는 그의 견해에 조금도 찬성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누군가가 이런 시선으로 유사한 사건을 보는 것에 대해 큰 반감이 있다.

아버지는 분명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의 경제력 밖의 일이었다. 이는 분명한 빈곤현상이고, 전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사회문제임에도 그것을 왜 '사회를 압박한다.'는 식으로 말하는가?

'사회를 압박한다.'라는 말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견해는 사회문제를 곧바로 정치문제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회를 압박한다.'라는 말은 유사한 사건이 모두 사회에 대한 테러 행위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다행히도 중국 공청단 위원 정도였으니 망정이지, 만약 직급이 높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사회 화합과 구조에 더욱 백해무익할 것이다.

그렇다고 나도 그 아버지의 행동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바로 선량한 사람들이 30여만 위안을 기부하지 않았는가? 이는 우리 사회, 특히 일반 민간인들 사이에 상부상조해야 한다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반응이 신속하고, 보여주는 열정은 아주 소중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나는 이번 사건이 불행을 겪은 사람과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른다면 우선 빨리 언론매체에 도움을 청하자! 가족을 유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더더욱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

이번 사건이 언론매체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언론매체는 객관적 사실의 저장장치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관적 사실의 저장장치이어야 한다. 주관적이어야 더욱 능동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언론은 인성을 갖춘 사회의 공공장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매체는 자기신뢰에 자각을 바탕으로하는 사회적 양지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 언론매체는 중국사회에 소외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데 힘쓰고, 사명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언론매체의 가장 큰 의의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절대로 가장 하찮은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언론매체의 임무는 주관적, 열정적으로 스타들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언론매체의 이런 의무는 매우 귀중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매체가 일방적으로 비난만 쏟아내지 않은 보도 태도는 상당히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인간적인 보도만이 민간사회의 상부상조 정신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이 병원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나는 앞서 이 병원을 언급할 때, '국립'이란 두 글자를 사용했다. 이는 사립의 반대개념이다. 나는 학교와 병원은 특수기관이고, 만약 공공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국립'에 걸맞은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립병원의 품격이란 무엇인가? 바로 인도주의를 첫 번째 원칙으로 영원히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역시 이 원칙으로 국가 정신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크든 작든, 성시(省市) 1급이든 농촌 1급이든, 무릇 국립에 속하면 모두 국가 정신과 관련 있다. 다시 말해 만약 한 사립병원이 환자를 대할 때 돈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는다면, 국민들은 그 병원 경영인을 경멸하고 저주할 것이다. 만약 국립병원이 이렇다면, 국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사건에서 병원 측의 반응과 태도는 좋았고, 의료진의 반응과 태도도 괜찮았다. 대번에 버려진 아이가 백혈병 환자라는 것, 또한 치료비를 지불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병원은 이런 이유로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지 않았다. 국립병원이 인도주의를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 세심한 조치를 취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 즉시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에 국가 정신과 국민의식은 서로 훌륭한 조화를 선보였다.

최근 몇 년, 일부 병원들은 국립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바람에 사람들을 분노 이외에 다른 어떠한 좋은 감정도 가질 수가 없었으며, 따라서 행동은 더욱 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병원의 책임자의 첫 번째 반응과 태도는 "내 병원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돈이 없는데 병을 치료할 생각을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생명이 소중하다는 건 개인에 따라 다르지! 병원이 만약 이 때문에 손해를 입는다면, 그건 모두 내 책임이다! 누가 나를 대신해 책임을 지겠어?"이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과 태도는 병원이 지녀야 할 인도주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몰아 어딘가에 버리는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 외에 전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선의의 행동이라 할 만한 조치를 취할 리가 없다. 신문에 작년 말 병원 측이 장례사에게 살아있는 사람을 화장하도록 통보한 악랄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었다. 이것은 위와 같은 극도로 비인도주의적인 악랄한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국립병원의 이런 악랄한 행동에 국민들은 국가 정신에 대해 큰 의문이 들게 될 것이다. 국가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손실은 대개 돈으로 메울 수 없다.

이 사건이 국가와 정부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병원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해도, 국가를 대신해 모든 소외계층의 생명을 무료로 구제해줄 수 있는 병원은 없다. 중국은 약 13억 명의 인구가 있고, 소외계층은 수억 명에 달한다. 몇 개의 촛불로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밝힐 수 있을까? 의료보험은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불행히 소외계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그 의료보험 비용을 내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배가 어떻게 바로 눈앞에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는가? 민정 부처가 이들을 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중국의 민정 부처가 이재민 구제활동을 촉진하는 역할만 했고, 정부에서 매년 큰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중국 자선총회는 어떠한가? 물론 힘들게 기금을 모금했지만 사실 중국 소외계층의 방대한 숫자에 비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더구나 그 지사 기구는 성(省) 1급의 상황에만 관여할 뿐 다른 대부분 성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하다.

그럼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인가?

물론 방법은 있다.

그러나 오직 국가만 이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다. 즉, 경제력이 있는 공기업 혹은 사기업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납세액의 1 ~ 5%를 무작위로 뽑아 기업 명의의 자선기금 설립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 자선기금은 당연히 면세이어야만 한다. 이는 천 개의 강과 하천의 줄기를 바다로 모으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기부방식으로 돈을 한데 모아 '계획경제'와 '일괄적 구매·판매' 전략을 실시한 자선은 이미 소외계층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심각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것을 증명했다. 자선은 사회 전체의 일이다. 그런데 왜 사회 전체가 함께하려고 하지 않을까?

만약 매년 10만 위안에 달하는 자선기금을 예로 든다면, 전국에 이 정도 규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회사나 기업이 얼마나 있겠는가? 1만 개 정도겠다!

물론 만약 어떤 사람이 10만 × 10000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큰돈이 어떻게 면세 대상인 자선기금이 될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부 사람들이 자선을 핑계 삼아하는 '합리적, 합법적' 탈세에 대해서 나는 정말이지 뭐라 할 말이 없다. 중국은 그 많은 '중국 특색'의 복잡한 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면서 사소한 일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인가? 각급 민정 부처를 지정해 자선기금이 매년 자선 구제에 쓰였는지 감독하게 하면, 민정 부처의 기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관점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학의 참된 모습이다. 첫 번째, 문명사회에서 활동하는 문명기업과 소양을 갖춘 기업가들은 사회로부터 고상한 일이라고 인정받는 일을 몸소 친히 하길 희망한다. 자선사업이 그러하다. 그들을 자선 기부의 대부호로 여기고, 당신이 돈을 내고 내가 받는다는 간단한 방법을 택하는 것은, 기업은 인성을 추구하고, 인성은 고상함을 추구한다는 사회발전 규율에 상호 모순되는 것이다.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이 규율은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기업은 더는 인성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또 인성은 더는 고상함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처럼 자산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기사를 읽어보기를 바란다. 어느 호텔에서 한 테이블에 198만 위안하는 음식이 예약이 이미 다 찼다. 이는 사람들을 반성하게 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언론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잘 하면, 국민들의 그 선량한 마음이 언제든지 쉽게 긁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인식관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사회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다. 자선사업도 국민들만의 일이 절대 아니다. 국민들의 인도주의 정신은 국가의 인도주의 정신의 선도가 필요하다. 국민의 측은지심은 국가의 측은지심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